

碩士學位論文

音樂 感想教育의 重要性 및 效果的인  
指導 方法에 관한 研究  
- 兒童期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朴 順 芳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音樂教育專攻

金 昌 希

2000년 8월

音樂 感想教育의 重要性 및 效果的인  
指導 方法에 관한 研究  
- 兒童期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朴 順 芳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0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音樂教育專攻

提出者 金 昌 希

金昌希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0년 7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국문 초록>

음악 감상교육의 중요성 및 효과적인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 아동기를 중심으로 —

김 창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지도교수 박 순 방

요즈음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 수업은 이미 알고 있는 곡들이 대부분이며 대중 음악의 범람 등으로 초등학생들이 음악 수업을 지겨워하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 수업의 본질적인 면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학 물질문명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다양한 산업 사회와 현대 문명의 발달을 가져 왔으나 아동들의 정서적 심성과 인간미는 날이 갈수록 메말라짐에 따라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동들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학교 음악은 물론 대중음악도 아동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고 안정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악 감상 교육의 중요성 및 올바른 지도방안을 알아보고, 음악 감상 교육과 대중음악의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음악 감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상 교육에 대한 문헌 연구와 감상

교육 실태 조사를 위해서 2000년 현재 제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표집된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수성이 가장 민감한 아동기에 정신 생활을 밝고 명랑하게 하며, 표현력이 풍부해 질 뿐만아니라 문화적 인간이 될 수 있는 정서 함양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올바른 음악 감상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음악 감상 교육과 대중음악의 실태분석 결과로는

1. 감상 수업에 관한 실태조사에서는 아동들이 감상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감상 수업의 근본 목적에 대해서도 감상을 통하여 교양을 쌓거나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등 매우 바람직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2. 가정 및 교외에서의 음악 활동 실태 조사에서는 고전 음악 연주회에 못 가는 경우와 음악 감상을 못 하는 이유가 시간과 여유가 없어서라고 대답한 아동들이 대부분이어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에게도 영어나 컴퓨터, 중학교 대비학원 등 입시 위주의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대중음악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대중매체가 보편화되고 시청율에만 의존한 방송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배우는 곡보다 대중음악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정리하여 보면

음악 감상 교육은 아동의 지적·정서적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음악 감상을 통하여 감수성이 가장 민감한 아동들에게 정신과 신체적 성장에 자극을 주는 것은 아동의 정서 함양은 물론 인격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풍부한 정서를 느끼도록 국가, 학교, 사회 그리고 가정에서의 상호 유기적인 노력과 배려로 음악 감상의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목 차

I. 서 론 .....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B. 연구의 내용 .....	2
C. 용어의 정의 .....	2
D. 연구의 제한점 .....	3
II. 이론적 배경 .....	4
A. 선행 연구 .....	4
B. 문헌의 고찰 .....	6
1. 음악 교육 .....	6
2. 음악 감상에 대한 일반 이론 .....	16
3. 음악 감상과 아동의 정서 함양과의 관계 .....	42
III. 연구 방법 .....	47
A. 연구의 대상 .....	47
B. 검사 도구 .....	47
C. 아동들의 감상 교육 설문 결과 분석 .....	48
D. 대중 음악 .....	54
1. 대중 음악의 정의 .....	54
2. 대중음악의 특성과 문제점 .....	55
3. 아동들의 대중 음악에 대한 설문 결과 분석 .....	57

IV. 논의 및 결론 .....	60
A. 논의 .....	60
B. 결론 .....	63
C. 제언 .....	63
부 록 .....	67
참고문헌 .....	71



## 표 목 차

<표-1> 음악 수업 중 가장 좋아하는 영역 .....	48
<표-2> 음악 감상수업에 대한 관심도 .....	49
<표-3> 학교 음악 감상이 미치는 영향력 .....	49
<표-4>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 .....	50
<표-5> 고전 음악감상이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	50
<표-6> 감상 영역에 흥미를 갖는 이유 .....	51
<표-7> 가정에서의 하루 평균 음악 감상 시간 .....	52
<표-8> 음악회 참가도 .....	52
<표-9> 음악 감상을 하지 않는 이유 .....	53
<표-10> 감상 시간에 감상한 곡을 학교 외에서 들어본 경험 .....	54
<표-11> 아동들의 음악에 대한 흥미도 .....	58
<표-12> 대중가요에 대해 흥미를 갖는 이유 .....	58
<표-13> 대중 음악을 감상할 때의 느낌 .....	59
<표-14> 대중 음악을 배우는 기회 .....	60
<표-15> 방송 매체에서 고전 음악 감상 경험 조사 .....	60

# I. 서론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정신 생활을 지(知)·정(情)·의(意)의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때 교육에서는 이들 세 가지 면이 조화된 교육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은 지(知)·정(情)·의(意)가 완전히 조화된 인격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란 한없이 발전과 변화를 계속하면서 어린애처럼 진실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교육은 어린이들을 성인의 '가상적인 완전체재'로 재촉하는 교육이 아니라, 어린이의 세계에서 그들을 바르고 아름답게 양육하는 것이다. 이 진실은 음악의 경우에도 들어맞는다. 바르게 생각되어진 음악 교육의 윤곽이란, 어린이를 음악적인 환경에 둘러싸고 서로 즐겁게 친해질 수 있는 음악 경험의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그러한 경험 속에서야말로 어린이들은 밝게 성장하고 충분한 사랑과 이해력 있는 인간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J. L. Musell이 '음악이란 인간 생활에 유익한 것일 때 비로소 교육에 채택할 가치가 있는 것이며 보다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교육적 가치나 의미가 없는 것'<sup>1)</sup>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음악적 환경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초등학교들에게 있어서 음악 환경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들은 정서함양에 도움을 얻을 수

---

1) James L. Musell, *Human Values in Music Education*  
(New York : Silver Burdett and Com. 1934), p.4



있고, 교육적이며 유익한 음악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 정서 순화를 위한 음악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예술을 수용할 수 있는 폭과 깊이를 그들의 내면에 마련하게 하여 주고, 그들의 음악적 삶의 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무 지식적인 면에 치우친 교육보다는 좋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아동들의 정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악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요즘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음악 수업은 음악 교육의 본질적인 면이 부각되지 못한 채 변화 없고 이미 알고 있는 곡들이 대부분이어서 초등학생들이 음악 수업을 지겨워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그들의 정서 함양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중음악의 범람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음악 교육에 흥미를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너무 상업적인 면에 치우쳐서 초등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인격 성장에 장애를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과학 물질문명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다양한 산업 사회와 현대 문명의 발달을 가져 왔으나, 아동들의 정서적 심성과 인간미는 날이 갈수록 메말라짐에 따라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동들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학교 음악은 물론 대중 음악도 아동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고 안정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악 감상 교육의 중요성 및 올바른 지도방안을 알아보고, 음악 감상 교육과 대중음악의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음악 감상 교육으로 질 높은 음악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B. 연구의 내용

1. 음악교육의 목적을 알아보고 음악과 정서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2. 아동기의 특성을 알아본다.
3. 음악 감상의 단계를 파악하고 감상 교육의 올바른 지도 내용을 살펴본다.
4. 아동들의 음악감상 수업에 대한 문제점 및 실태를 파악한다.
5. 대중 음악의 정의와 특성, 문제점을 파악한다.
6. 감상 수업과 대중 음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C. 용어의 정의

### 1. 음악 감상



음악 감상이란 음악의 심미적 특성이나 가치를 음미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음악 작품을 음미하고 거기서 미적인 내용을 즐기며 이해하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음악 감상은 연주, 창작, 등과 같이 음악 학습 활동에서 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교육의 모든 부분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음악 감상은 단순한 청취활동이 아니고 훨씬 넓은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음악 감상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좋은 음악의 자극에 의하여 스스로 음악을 들으려는 의욕을 기르는 것이다.

### 2. 정서 함양

정서란 회·노와 같은 감정이 비교적 강화된 상태이며, 그 특징으로서는 대단히 강하고도 짧으며, 안면의 표정이나 호흡 등의 생리적인 수반현상을

일으키는 것, 지각이나 성격에도 영향을 주어서 행동을 촉진시키는 것 등의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음악적 정서는 사람의 내면과 음악의 지속적인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음악에 대한 감정 상태를 뜻한다. 그것은 음악 작품과의 만남과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의미를 발견하며, 그와 동시에 타인의 느낌과 감정을 수용하고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는 지속적인 경험으로부터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마음을 밝고 풍요하게 하여 주며, 아동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 D. 연구의 제한점

1. 연구의 대상을 제주도 제주 시내 5,6학년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실행한 내용으로서 다른 지역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이다.
2.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3.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을 기초 자료로 하였기 때문에 질문지법이 가지는 일반적인 약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A. 선행 연구

초등학교 음악 감상에 대한 선행 연구로 감상 교재에 대한 논문 1편, 감상 실태에 대한 논문 4편, 교과서를 분석한 논문 1편, 감상 교육 내용에 대한 논문 3편 등을 살펴보았는데 그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영식<sup>2)</sup>은 대부분의 학교가 음악실을 보유하지 못했으며 녹음기를 제외한 감상 기구와 감상 학습 자료가 불충분하여 정상적인 감상교육의 어려움이 있고, 음악 시간의 중점 지도 영역을 가창과 이론을 주로 하고 있으며, 아동들은 감상 학습을 선호하나 대부분의 교사가 감상 수업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활용하지 않고 감상 곡의 곡명이나 작곡자 정도만을 지도하는 형식에 그쳤으며, 감상 평가에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염숙이<sup>3)</sup>는 음악 감상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지도 방법에서 종래의 음악 감상에 대한 관념이나 개념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동안의 수동적인 감상은 음악 감상이나 음악 감상 교육방법으로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음악 감상 교육이 일어나는 교육의 현장에서부터 아동들의 음악 감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동과 교육자 모두에게 도

---

2) 김영식, 초등학교 음악 감상 교육의 실태파악 및 효율적인 지도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3) 염숙이, 음악 감상교육의 효과적인 지도 방법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음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윤혜섭<sup>4)</sup>은 그의 논문에서 ‘감상학습은 어린이들에게 음악적 구성요소와 이들의 상호관계 생성원리 등을 청각적으로 체험시키고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음악적 느낌들을 폭넓고 깊이 있게 심미적으로 감수하며, 그들의 바람직한 음악적 정서를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인데도 그냥 듣는 시간으로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면서 감상학습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지도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악곡에 대한 교사 자신의 감상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여러 번 되풀이 들으면서 악곡 속에 숨어있는 음악적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이를 재조직하여 어떤 순서로 악곡을 들려주어야 어린이들의 감상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나’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강시남<sup>5)</sup>은 음악 학습 활동이 심미적 음악 체험이 되기 위하여 음악적 의미의 공감을 돕는 학습의 원리와 내용을 음악적 의미에 따라 제시하였다. 감상 학습에서 음악 본유의 구성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여기에 따른 감상 관점을 찾아 감상하는 것이 필요하며, 요소와 원리에 맞는 감상 곡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이영애<sup>6)</sup>는 음악 감상의 기회가 단순한 감상에 그치지 말고, 감상을 함으로써 아동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손은주<sup>7)</sup>는 정서적으로 압박감을 가지고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자신의 마

---

4) 윤혜섭, 초등학교 음악과 지도방법의 개선 방향,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학습 지도 방안의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예술연구소, 1994, pp.56~57.

5) 강시남, 음악적 의미의 공감을 돕는 학습의 원리와 내용,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6) 이영애, 음악 감상과 창작의 연계 지도 방안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7) 손은주, 음악감상을 통한 청소년의 심리 변화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음을 숨기려던 아이들이 꾸준한 음악 감상요법과 대화로써 적응하기 어렵던 주변 환경으로부터 부담감을 덜고, 스스로 나아가게 됨을 느낄 수 있어서 건전한 정신 건강과 사회의 적응을 위해 음악 감상 요법은 필요하다고 하였다.

## B. 문헌의 고찰

### 1. 음악 교육

#### 1) 음악 교육의 개념

『음악은 지상 예술미의 극치이다.』<sup>8)</sup>라고 플라톤은 말했다.

『미(美)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도덕의 방편은 아니나 고상한 예술이 몸에 배면 스스로 인간의 정신을 순화하고 더 나아가서 품성을 고결하게 하는 것이다.』<sup>9)</sup>

『음악 교육은 예술 교육의 일부분으로서 학교나 사회를 망라한 넓은 범위에서 행해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을 가리킨다. 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은 다시 전문교육과 일반적인 교육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음악의 전문적인 기술의 습득이나 이론의 연구를 주목적으로 음악가나 음악교육가를 양성하는 학문으로서 음악을 연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음악을 배워 일반 교양을 높이고 정서를 키우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음악 교육의 일반 목표란 인간이 지닌 음악적인 자질을 충분히 배양하고 그 결과로 만족스런

---

8) 정순목, *기능의 교육*,(서울 : 배영사, 1970), p.130

9) 이혜구의 *12명, 음악대사전*, (서울 : 미도문화사, 1977), p.1024.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다. 즉, 음악의 표현 감상을 통하여 음악미의 이해 감득과 창조성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정서를 순화하며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원만한 인격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10)</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 교육은 인간에게 음악을 접하게 함으로써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 음악적 사고를 통하여 음에 내재되어 있는 정서적인 힘과 융합을 이루어 건전한 정신적인 힘을 영위하는 데 있는 것이다. 또한, 음악적으로 넓은 안목을 지닌 인간을 육성하여 안정된 생활과 원만한 생활의 소유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음악 교육이다. 즉 음악 교육을 통해 음악을 체험시킴으로써 인간성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성장시킴과 동시에 생활 속에서 번영을 주고 내일을 위한 힘을 길러 주는 것이다.

이처럼 음악 교육의 역할은 우리의 현실에 분명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교육이 전인적 인간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 음악 교육은 아동들의 정서 함양이나 인격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 더욱이 현대와 같은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시달린 마음을 회복하고 매일의 생활을 위한 활동으로서의 훌륭한 음악을 추구하게 된다. 즐거운 음악 생활은 상실된 인간성을 되찾는 좋은 방법이며, 음악 교육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다.

따라서 음악 교육은 음악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며, 이의 향수(享受)와 표현의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어느 교육보다도 조화롭고 정서 함양을 위한 중요한 교육인 것이다.

## 2) 음악 교육의 목적

음악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음악 교육이 음악을 통한

---

10) 이혜구 외 12명, 전게서, p.1024.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을 먼저 알아볼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음악이 일종의 ‘소재’이기 때문에 —물론 소재의 본질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음악이란 소재를 사용하여 교육하려는가에 대한 물음이 앞서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많은 물음을 던지고 있는 교육학자들의 여러 이론을 종합하여 총체적인 의미의 음악 교육의 목적을 제시하려 한다.

첫째,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B. C 470~399)는 ‘교육은 지식을 교수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지식을 탐구하고 德을 지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언하는 것’ 이라 하였다. 다시 말하면 지식을 탐구하려는 이상적 능력은 청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으므로, 그것을 개발하고 덕을 실현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했던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B. C 428~388)도 같은 맥락에 서서 교육을 정의하고 있다. 그는 ‘善의 idea를 지향하여 청년의 정신을 전향시키고 생성하게 하는 것’ 을 교육의 본질이라 하였다.<sup>11)</sup> 독일의 철학자 I. Kant(1724~1804)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하는 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간답게’는 다분히 정신적 도덕적 목표에 접근하고 있는 개념이다. 동양 철학자 공자(B.C 551~479)도 인격주의적 교육본질관에 입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공자는 당시 중국 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육을 중시하면서도, 그 주된 관심은 도덕적 인격교육에 있었기 때문이다.<sup>12)</sup> 이상의 철학자들은 교육을 이상주의적 인격주의의 교육본질관에 입각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가치를 이성에 입각한 도덕적 행위의 유무에 두고, 교육은 그와 같은 측면의 성장 발달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 서 있다.

---

11) 용권, 신교육학개론, (서울 : 양서원, 1993), p.15

12) 상계서, p.16



둘째, 낭만적 자연주의 교육본질관에 입각한 교육의 정의를 살펴보면 그들의 관심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자연적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에 있다. J. J. Rousseau (1712~1778)가 그 대표적 사상가이다. 그는 선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실학주의와 계몽사상에 의해서 형식화되었던 서양 18세기 중엽의 교육 풍토를 맹렬히 비판하는 과정에서 ‘교육이란 인간의 자발자전(自發自展)을 위한 모든 조성작용(助成作用)’이라고 정의하였다.<sup>13)</sup> 이것은 개인의 발전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것으로 교육은 다만 이 자율적인 길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로 그쳐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루소는 그의 교육 소설 ‘Emile’의 제 1장 첫머리에서 『조물주의 손을 나올 때는 선하지만 인간의 손에 옮겨지면 모든 것이 악해지고 만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주의 교육본질주의자들은 인간 본성이란 자연처럼 본래는 선하였는데, 잘못된 사회나 교육이 강제로 주입한 문화니, 인격이니,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이 허식으로 변모하여 악의 원천을 이룬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참다운 교육은 인간성 그 자체 안에 잠재하고 있는 선 성을 믿고 발전의 가능성을 거기에서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타고난 잠재 능력인 선한 자연성을 중시하면서 미성숙한 자연인을 독립적인 성숙한 자연인으로 자유롭게 육성하는 모든 조성작용이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이상주의의 교육본질관에 입각한 정의가 있다. 이것은 인간이란 일정한 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또 사회 속에서 그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입장이다. J.H.Pestalozzi(1746~1827)는 교육의 장소는 신의 사랑을 근본으로 삼는 아버지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오고가는 교류를 본질로 하는 가정이라 하였다. 따라서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하고 이

---

13 용권, 전계서, p.16.

를 기초로 하여 학교나 사회를 올바른 인간교육의 장소로 개조하려고 하였다.<sup>14)</sup> 따라서 그는 가정이나 사회의 비교육적 환경 속에 방치된 고아나 빈민의 자녀들에게 따사롭고 안정된 환경을 베풀어주는 일을 교육의 중요한 첫 단계로 보았다. S. Acher(1746~1834), P. Natorp(1854~1924), E. Kriek(1882~1947)들도 사회적 이상주의 교육본질관에 입각하고 있다. 그들은 『교육이란 사회의 계속적 개혁의 수단』, 『교육이란 사회의 선진세대가 후진세대에 미치는 동화적 영향』, 『교육이란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서 자연적, 개인적 인간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인간답게 형성해 가는 도덕적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sup>15)</sup> 미국의 현대 교육철학자요 진보주의 교육철학의 대표자였던 Jhon Dewey(1859~1952)도 사회적 경험주의의 교육이야말로 참 민주주의의 교육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교육은 개인적 행동의 원리라기보다는 사회적 인격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행동의 원리로서 협동활동을 통하여 개발되고 신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사회 생활은 그 자체가 모두 교육이며, 교육이 없는, 교육력을 갖지 않는 사회환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이 가능하자면 사회생활 그 자체가 민주주의적인 생활로 영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교육은 아동·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식, 감정, 행동양식을 가르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위한 적당한 사회환경을 조정함에 따라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다. 따라서 『교육은 생활이며, 성장이며, 사회적 과정이며, 계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이라고 한 것이다.<sup>16)</sup>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육은 그 목표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

14) 상계서, p.16.

15) 용권, 전계서, p.18.

16) 상계서, p.18.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모두가 『인간과 사회』의 양면에 서로 작용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점에 공통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견지, 자연적인 견지, 사회적인 견지, 종교적인 견지를 불문하고 모두가 『교육은 이상적인 인간개조의 수단』이라는 점이 일차적인 공통점이다. 그런데 이 ‘이상적 인간’이란 자기가 소속한 각종 사회집단 내에서 보다 유능하고 필요한 인간이어야 하고, 보람있고 흐뭇한 개인생활을 이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은 이상적인 사회개조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결코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육이란 이상적인 인간 형성의 과정이며 보다 나은 사회 개조의 수단』 또는 『보다 나은 삶의 의미와 방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문화적 행위』라고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 의미의 정의가 되는 것이다.

연구자는 위에서 교육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교육의 목적을 이해함에 있어 어느 한 도식적인 정의보다는 총체적인 의미로 파악해야 될 것이다.

다음으로 위에서 살펴본 교육의 목적이 음악교육이라는 체계 아래에서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음악교육 학자들의 이론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J.L. Mursell은 그의 저서 ‘음악교육과 인간 형성(Human Values in Music Education)’에서 음악교육은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했다.<sup>17)</sup> 이러한 견해는 음악을 통해, 즉 음악을 수단으로 해서 사회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음악이 인간 생활에 유익한 것일 때 비로소 교육에 채택할 가치가 있는 것이며, 우리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교육적 가치나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머셀은 음악이 본래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다 좋은 것으로 하

17) J. L. Mursell, Music as social opportunity, Human Values in Music Education (New York silver Burdett & Co.), pp.64~99.

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참 음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예를 제시했다.

첫째, 참된 음악은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다.

둘째, 인간적 가치에 기반을 두는 음악은 총체적인 것이다.

셋째, 인간적 가치에 기반을 두는 음악은 풍부한 교양이 있는 것이다.

넷째, 인간적 가치에 기반을 두는 음악은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음악교육을 인간의 도덕성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플라톤(Platon)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체육을,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음악을 교육의 내용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최종진은 그의 저서 ‘음악과 교육론’에서 ‘음악교육은 음악의 체계를 통하여 음악성과 창조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갖도록 하며 인간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라고 했다.<sup>18)</sup> 즉, 음악교육의 목적을 음악을 통하여 인간성에 계획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외에도 여러 교육학자들은 음악교육은 ‘조직화된 소리’속에 내재해 있는 미적 특성을 인간에게 입문시키는 활동이 음악 교육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음악은 예술이며, 따라서 음악교육은 ‘미적 체험의 교육’인 것이다. 미적 체험이란 곧 ‘전인적 체험’의 뜻을 지닌다. 이러한 미적 체험은 첫째, 인간성을 정당하게 해방시켜 주며 둘째, 인간성을 풍요하게 하여 주며, 셋째, 인간을 아름답게 성장시키는데 필연적인 체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음악교육

---

18) 최 종진, 음악과 교육론, (서울 : 선일 문화사, 1984), p.8.

은 '전인 교육'인 것이다. 즉, 교육으로서의 음악은 단지 정서교육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성 향상을 위한 '음악적 교육'인 것이다.

연구자가 위에서 여러 음악교육 학자의 이론을 들어가며 음악 교육의 목적을 살펴 본 바와 같이 음악교육의 목적들이 일반 교육의 목적과 같은 지평위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교육의 목적 역시 교육의 목적처럼 하나의 도식적 정의보다는 총체적의미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음악교육의 목적을 파악함에 있어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음악 때문에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 때문에 음악이 있고, 교육 또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므로 음악 교육도 인간의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3) 음악교육의 중요성과 가치

#### (1) 역사적 배경

아주 옛날부터 음악은 인간 생활, 특히 교육면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대 회랍이나 중국의 철인들이 음악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였고, 시대나 국가를 초월하여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었다. '음악을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은 Platon이었다. 그는 '인간 도야의 이상은 선과 미이며, 미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선의 경지에 도달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교육의 장에서 중요한 것은 체육과 문예(특히 음악)라고 보고 이들 쌍방의 조화적인 활용이야말로 교육의 요점이라고 말하였는데, 음악이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 면에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중시한 플라톤의 음악교육관은 그의 'Ethos론'에 잘 표현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리아 선법'은 훌륭한 시민다운 남성적 기계에 넘치고, '이오니아 선법'은 연약, 방일한 것이라고 하여 선법의 성격에 그대로 도덕적 성격을 결부시켰다.<sup>19)</sup> 또한 그는

Pythagoras의 영향을 받아서 난잡하고 기품이 없는 Aulos(고대 회랍의 관악기)의 연주를 배제하고 Kithara(고대 회랍의 현악기)의 반주에 의한 악곡이 교육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어쨌든 회랍에서는 플라톤 뿐만 아니라 그의 선배인 피타고라스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철인들도 인간 형성에 있어서의 음악교육의 가치를 중요시한 사실은 참으로 주목할 만 하다.

음악의 효용이나 교육적인 가치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선 철의 사상뿐만 아니라 음악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sup>20)</sup>

- 원시 사회의 『음악의 리듬적 효용』
- 고대 회랍의 에토스론에서 볼 수 있는 『음악의 선율적 효용』
- 고대 로마의 가정이나 사회에 있어서의 『음악의 오락적 효용』
- 중세 예수교에서 볼 수 있는 『음악의 종교적 가치』
- 실학주의의 시대에서 볼 수 있는 『음악의 도덕적 가치』
- 교육자연주의에서 볼 수 있는 『음악의 전인 교육적 가치』
- 예술 운동기에서 볼 수 있는 『음악의 생활적 가치』

이상의 분류는 교육으로서의 음악을 규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상의 흐름은 음악을 단순히 정서적 산물이나 이성, 사상의 통일이라는 등의 개념 이상으로 직접적이고 생명 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이다. 오늘날 학교 교육은 이와 같은 음악에 대한 본원적인 음미 없이는 어떤 형태이든 규정하기 어렵다.

요컨대 학교교육으로서의 음악, 혹은 교육으로서의 음악은 단지 ‘정서 교

19) Donald J. Grout, 김진균의 2명 공역, (서울 : 세광출판사, 1986), pp.98~99.

20) 유덕희, 음악교육학개론, (서울 : 학문사, 1982), pp.19-38.

육'이라는 한 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발전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의 근본적 작용으로 보아야 하겠고,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내면적인 윤리성과도 관계가 있다고 해도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J. Dewey의 '회화와 음악, 즉 조형예술과 청각예술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의 정상이며 세련 순화의 극치이다.' 라고 본 점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예능과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한다.

## (2) 음악의 교육적 가치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미적 감수성(Aesthetic Sensibility)이라 하는데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Personality의 한 양상이다. 모든 문화는 예술에 의존하기 마련인데 이는 인간이 아주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미적 수단에 의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는 근본적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적 감수성을 계발하는 일은 예술 교육의 모든 프로그램들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악교육은 예술 교육의 일부분이다. 음악교육은 결코 전문적인 음악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며, 넓고 깊은 음악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 하겠다. 즉 음악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며, 음악 미를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음악 미의 이해 감득을 제 1차적인 것으로 하고 이것을 통하여 높은 미적 정서와 풍부한 인간성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술교육을 예술을 통한 인간교육이라고 정의한다면 음악교육은 음악을 통한 인간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음악 교육은 인간형성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이룩하는가?

첫째, 음악은 인간성 향상의 가장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 음악은 인간의 마음속에 강하게 호소해서 정서에 작용한다. 음악을 듣고 즐거워하는 것

은 행동의 원동력이며 정서에 안정을 가져오고, 정신 건강에 있어서 중요하다. 음악을 듣고 깊이 감동하는 것은 보다 높은 것, 보다 아름다운 것을 구하는 마음을 배양하고 나아가서는 올바른 것을 구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마음가짐을 기르게 된다.

둘째, 음악은 인간생활에 온정을 가져오게 하고 여가를 유효하고 즐겁게 이용하는 능력을 길러 준다. 여기서 여가 선용으로서의 음악을 택했을 경우의 장점을 보면, 오락의 유해한 영향이 상쇄되고 조화적인 태도나 성향이 양성되며, 가정생활이 풍요해지고, 종교적 감정을 체득하게 되며 자유로운 사교적 수단을 얻게 되는 장점이 있다.

셋째, 음악은 사회생활에 있어 협조성, 우애성을 형성한다. 음악은 음의 세계를 공통의 목표로 해서 추구하는 것으로, 합창과 연주 활동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자의 마음으로 부터의 협조가 필요하다.

넷째, 음악은 창조적 태도를 기른다. 음악을 듣는 것, 연주하는 것, 작곡하는 것 등은 한결같이 그 사람의 심미적인 양심,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순수한 마음, 자유로운 마음이 근원이 된다. 이와 같이 각자에게 생기는 표현은 마음대로의 창조적인 활동이 되며, 개인에 상응하는 창조적 표현의 장려는 학생들의 음악 학습을 보다 충실히 시키는 동시에 창조적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다섯째, 음악은 국제 이해에 유효하다. 음악의 예술적인 표현이 모든 사람의 감정의 선을 움직여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음악을 통한 이해와 교류는 서로 다른 민족사이에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음악은 국제 공통어로서 국경을 넘어 지구의 반대쪽에 사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까지 우정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21)</sup>

---

21) J. L. Mursell저, 한국음악교과서연구회 역, 음악교육과인간형성,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6), pp.72~94.



이처럼 아름다운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고 따뜻하게 하며 새로운 풍요한 세계를 향해 이끌어 가는 선동적인 힘이 있다. 더욱이 현대와 같은 인간 상실의 시기에 사는 사람들은 시달린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의 생활을 위한 활력으로서 훌륭한 음악을 갈구하게 된다. 여기에 생기 넘치고 즐거운 음악 생활을 통해서 상실된 인간을 되찾는 길은 음악교육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임무인 것이며, 미의 향수와 표현의 능력을 기르는 음악교육은 다른 어느 교육보다도 필수적이고 생활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 2. 음악 감상에 대한 일반 이론

### 1) 음악 감상의 의의와 필요성

음악활동은 작곡, 연주, 감상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작곡과 연주는 비교적 전문적 활동, 즉 음악가들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음악적 지식이나 연주 능력 없이도 일반적인 애호가들이 편안히 즐길 수 있는 음악활동을 감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감상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음악감상이란 음악의 심미적 특성이나 가치를 음미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음악 작품을 음미하고 거기서 미적인 내용을 즐기며 이해하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음악감상은 연주, 창작 등과 같이 음악 학습 활동에서 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교육의 모든 부문과 관련되어져야 하므로 단순한 청취활동이 아니고 훨씬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sup>22)</sup> 다시 말해서 음악 감상은 수동적인 태도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창조적 활동을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2) 유덕희, 음악교수법, (서울 : 정음사, 1976), p.193.

음악교육 학자인 J.L.Musell은 음악의 지도 계획에서 음악을 어떻게 지도 하여 사회성을 높일 것인가를 영역별로 나누었다. 감상영역의 지도에 대하여는 학생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수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활동을 하는 것으로, 감상수업 종료와 동시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음악수업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즉 교사는 학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감상수업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도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는 의무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음악 감상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좋은 음악의 자극에 의하여 스스로 음악을 들으려는 의욕을 기르는 것이다. 즉, 개인에게 만족을 주는 동시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음악적 취미를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3)</sup>

최근 심리요법의 하나로 음악감상을 이용한 치료법이 정신질환의 치료로 그 효능이 인정되어 활용되고 있다 심리학과 병리학의 분야에서도 실증을 통해서 음악 감상을 이용한 요법적 효능이 증명되었으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 정박아는 리듬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 음악은 주위를 환기시키고 지속시키는 효능을 갖고 있다.
- 음악은 기분을 전환시키고 긴장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 리듬은 그 작용에 의해 근육을 부드럽게 하며 개방됨을 느끼게 한다.
- 표제음악은 상상력을 자극해서 정신 회복에 효과가 있다.<sup>24)</sup>

음악감상이 왜 요법적 효능을 발휘하는가 하면 그것은 음악 그 자체가 노한 감정을 수반하지 않고, 지적인 저항이 거의 없어 동작을 유도하는데

23) 이은일, 음악교육학개설, (서울 : 현대음악출판사, 1987), p.195.

24) 김창성, 음악의 효법과 적용, (서울 : 태림출판사, 1980), p.121.

논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음악감상에 의한 생리적 작용도 정신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여 현재 정신 요법의 면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들은 보통 상식적이면서도 무심코 흘려버려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감상의 요법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튼 고대 철인들의 경험과 직관에 의해 예견된 음악의 가치를 현대의 과학이 그 요인을 실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대의 음악감상 교육에 있어서도 자극되는 일이 될 것이다.

감상은 음의 움직임과 음의 동향을 인지하고 음악적 자극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음의 동향이 억제되는 것에 대한 감수성을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감상자의 기대가 채워졌는지 거부당했는지를 인지할 것을 요구한다. 감상을 개발하는 기초는 음악의 움직임에 일치하는 긴장과 완화사이의 파동, 그리고 음악 속에서 움직이는 선율의 감정적인 의미에 대해 감수성과 반응을 신장시키는 데 있다.<sup>25)</sup> 적극적인 감상은 음악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연구하고 작곡을 하는 표현 학습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상 학습은 학생들의 의욕과 능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은 곧 음악의 궁극적인 목표인 음악의 생활화를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감동을 일으키게 하는 활동에는 가창, 기악, 창작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깊이나 강도에 있어서는 감상에 비할 바가 못된다.<sup>26)</sup> 또한 감상은 훌륭한 음악예술에 접함으로써 보다 넓은 상상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으며, 그 이미지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사고력도 아울러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모든 표현 능력의 발달과 그 지도는 넓은 의미에서

---

25) 찰스 레온하드, 로버트 하우스,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 안미자 역, (서울:이화여대출판부, 1992), p.136.

26) 정 세문, 음악과 학습지도, (서울:창지사, 1986), p.298.

음악을 감상하면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음악의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거기에 감동될 수 있는 마음을 육성하는 것이 음악교육의 근본이 된다고 하겠다. 더구나 감상 능력의 가장 큰 요소인 음에 대한 감수성의 발달은 어린이들 장래에 음악 활동의 근본이 될 것이다.<sup>27)</sup>

‘가슴이 벅차고 뜨거워졌으며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동했다.’라는 음악적 체험은 일생에서 몇 번 있을까 말까 할 것이다. 정말로 감동했을 때의 인간은 숭고한 정신으로 되돌아가며, 애정에 넘치고, 감정이 풍부해지고, 겸손하며 성실해지는 등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최상의 상태에 다다르게 된다.

이와 같은 감동적인 경험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힘을 가졌으며, 감상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 2) 음악 감상의 의미

“감상이란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애호하는 심정을 환기시켜, 음악을 보다 깊고 보다 현명하게 키워 가려는 음악 교육의 추진력이다.”<sup>28)</sup> 라고 레베츠도 말하고 있듯이 음악성은 음악의 아름다움을 향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음악 교육에 있어서 음악에의 흥미나 애착에서 오는 모든 충동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음악에의 본질적 동기화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결과는 단 하나 ‘음악 교육의 기초는 감상이다’ 라는 것이다. 감상은 음악에의 동기화의 원천이고 음악 교육의 목적은 보다 좋은, 보다 깊은 감상만으로도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감상이란 음악 학습 활동의 한 영역이 아니라, 음악 교육의 모든 세부에 침투해야 할 것으로, 이 점에서 단

27) 이성삼, 음악교수법,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p.218.

28) J. L. Mursell / M. Glenn 공저, 한국음악교과서연구회 역, 음악교육심리학,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3), p.90.

순한 청취 활동이 아니고, 훨씬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sup>29)</sup>

### 3) 음악 감상의 기초

감상이란 음악의 아름다움을 감득하고, 그것을 조장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에 앞서 우선 그 향수의 원천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다. 이 방면의 자료는 수없이 많으나, 그 중에서도 뷰니스(Beaunis)·다우니(Downey)·질먼(Gilman)·벨트(Weld)·카츠(Katz)·레베츠(Revecz)와 블레유(Belaiew)·엑셈플라르스키(Exemplarsky)와 휘틀리(Whitley) 등의 연구가 그것이다. 이들 중의 하나 하나에 대하여 여기서 말할 여유는 없으나, 이들 연구의 종합적 결과에 따라 음악 향수의 원천을 찾아보기로 하자

#### (1) 음의 향수 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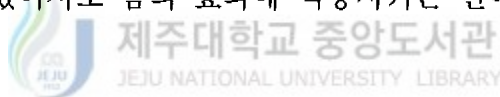
이미 말한 사람들의 음악 향수에 관한 연구에서는 모두 음질·선율·화성 등은 음악을 향수할 때의 원천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발표 속에는 우수한 음악 교사가 예상 이상으로 보다 깊고 보다 미묘한 무엇인가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카츠와 레베츠에 의해 보고된 서터메스터(Sutermeister)의 불가사의한 사례이다.<sup>30)</sup> 그는 음악 애호가이고 귀머거리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악에 매우 민감하며 진실한 음악 연주를 향수하고, 관현악의 연주에 있어서는 특히 현저한 향수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리고 보통 '귀머거리'처럼 연주하는 악기를 만진다든지 마룻바닥으로 전해 오는 진동으로가 아니라 신체 전체로 즉석에서 음에 반응하는 직접적 감응을 보였다고 한다. 거기에다 그를 조사한 심리학자의 보

29) 유덕희, 전계서, p.192.

30) J.L.Mursell / M.Glenn 공저, 전계서, p.91.

고에 의하면, 깊은 음악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으며, 그 반응은 연주되는 각종의 음악에 완전히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례를 생각하면 ‘아동은 모든 다른 요소보다 순수한 음에 대해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반응을 나타낸다.’라고 발표하고 있고, 엑셈플라르스키 여사는 “좋은 음은 음악 애호의 기초로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져다준다.” 라고 말하고 있다.<sup>31)</sup>

요컨대 음악 감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좋은 음’을 사용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며, 우리는 어린이들이 ‘좋은 음’에 주목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확실히 음의 아름다움을 갖지 못한 악기는 감상을 쌓아 올리는 데에 매우 중요한 기회를 잃게 하기 쉽다. 또 연주 계획 과제의 기본적 요점은 항상 깨끗한 음에 애착을 갖게 하는 것이며, 음악적 창작을 향수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음의 효과에 적용시키는 면이 결코 적지 않다.



## (2) 리듬 반응

학교 음악에 있어서 리듬적 요소가 중요시되지 않고 흘러 버리는 수가 많다. 또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리듬감이 빈약한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머테이(T.Matthay)가 발표한 하나의 사실을 생각한다.<sup>32)</sup> 몇 명의 피아노 교사들이 학생의 피아노 연주의 비평을 의뢰 받았다. 곡목은 쇼팽의 군대 폴로네에즈였다. 하지만 어떤 부분의 리듬이 불명확한 연주임에도 불구하고(무엇인가 리듬이 잘못 되었다고 느끼기는 하였지만) 음악을 비평하는 경험자들이 누구하나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해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무튼 음악 향수의 심리학적 연구 면에서는 일치하여 인정하고 있

31) 유태희, 전게서, p.193.

32) 유태희, 전게서, p.193.

는 음악 향수의 중요한 기초로서의 리듬 반응에 대하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불문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 듯하다. 리듬 반응이 음악에의 애착과 이해를 쌓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리듬적 요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청취 활동에서는 대체로 부드럽고 큰 신체적 동작에 의하여 리듬에 반응시키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테면 발을 구른다든지, 춤을 추든지, 스킵(skip)하든지, 청취 계획 과제나 연주·창작 등의 과제를 통하여 리듬 구조를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지도해야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음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흥미에의 직접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리듬을 취급하여 감상의 중요한 기초로 하여야 한다.

### (3) 연상과 상상

악곡을 듣고 풍부한 연상을 그리든지 또는 의의 있는 경험과 넓게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다면, 음악적 향수는 증진된다. 이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여 지도하면 효과적이다.<sup>33)</sup>

첫째, 청취활동 또는 연주 활동으로써 악곡을 제공할 경우, 그 곡에 자연스러운 생명을 줄 수 있는 '연상'을 강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 곡에 관한 많은 지식을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정황을 상기시킨다든지, 어떤 분위기의 표현이라든지, 다른 예술 작품으로 말하자면 미술이나 문학적인 면과 관련시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둘째, 창조적 과제의 경우, 연상적 요소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개인 또는 집단이 흥미 깊은 것과 관련하여 간단한 시를 짓는다든지, 그것에 선율을 붙여본다든지, 노래 부른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

33) 상계서, p.194.

셋째, 우리가 자유로운 연상을 강조하려고 할 경우, 아동의 연상이 그 음악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음악에 관한 지식에 따르면서, 그것과는 거의 무관한 연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음악적 향수를 신장시키려는 의미의 것과는 관계가 없다.

#### (4) 형식이나 음악 구조의 체득

우리는 음악 학습의 최초부터 프레이즈를 가르침으로써 음악 구조의 문제를 취급한다. 예를 들면 1학년 때부터 프레이즈를 취급하고 있으며, 청취 활동이나 연주를 통해서 프레이즈를 점차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 또 악곡마다에 프레이즈의 계속·반복·대비·변주 등을 가르치고 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음악의 형식 감각은 가창 학습에 의해서 한층 강조되고, 청취나 연주의 계획 과제에 의해서 시의 프레이즈 구조나 형식에 주의할 것을 배려하고 있다.<sup>34)</sup>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지적인 요소를 일체 쓰지 않고서도 음악 형식을 이해하도록 하여, 음악 향수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음악적으로 보다 높은 성장이 되도록 한다.

#### (5) 지적 태도와 감정적 태도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음악 향수의 원천에 관한 최후의 문제이다. 음악 감상의 실제 면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여 본다면, 뷰니스는 만족스런 음악 향수의 요소로서, 들을 때 마음가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5)</sup> 미국의 라디오 방송에서는 청중으로서의 기대도 없이 수동적이며 음악 감상의 계획에 신경을 쓰지 않는데 비해 영국에서는 이와는 다르다고

34) J. L. Mursell / M. Glenn 공저, 전계서, p.94.

35) 유덕희, 전계서, p.196.



한다. 영국 방송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은 들려주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명곡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모자라면 컷트 당하는데도, 청중들에게 미묘한 침투력을 갖게 한다고 한다. 따라서 라디오 방송이 음악의 교육적 가치를 손상시킨다고 비난받는 원인은 방송자체보다는 청취자 측의 지적 내지 감상적 태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악 감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취자의 흥미, 수용적인 태도·기대 등 각 방면에서 될 수 있는 한 신경을 써야 되겠고 아울러 전반적인 시설 환경도 무시하지 못한다. 아무튼 그릇된 태도나 좋지 못한 정서적 분위기는 감상을 그르친다는 것, 음악 교육은 감상에 의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음악 계획 과제가 그 교육적 가치의 다소나마 차지하려면 흥미적 태도·수용적 태도·기대적 태도의 각 방면에서 될 수 있는 한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섬세한 방법과 전반적인 시설 환경의 설정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는 특별 교실을 가진 학교와 같이 음악 교실을 마련하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청취활동과 감상

청취 활동은 가장 뚜렷한 감상의 매개이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감상'이란 청취라고 생각하고 있기가 쉬운데, 이것은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음악에의 애정과 이해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취 활동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채로운 음악 향수의 원천을 효과적으로 이룩할 수 있게 청취의 장소와 상황 설정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 (1) 레퍼터리

청취에 이용할 악곡의 리스트 작성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형태·시대·수준 등에서 넓은 범위의 음악을 포괄할 것. 즉, 학생 자신이 자기의 향수 능력을 찾아 낼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다양한 악곡을 마련하는 것이며, 시대 순으로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

둘째, 프로그램으로서 흥미 깊은 악곡 또는 자연스런 연상·상상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흥미 있는 음악, 즉 이야기나 연상에 관련된 것이 좋다. 예를 들면 3~4학년에서는 Tchaikovsky의 '호두까기 인형', 4~5학년은 Greeg의 '페르퀀트', 중학교 1학년에서는 Beethovene의 'egmont 서곡', 음악 경험이 깊은 고등학교에서는 Beethovene의 'Symphony No.3 영웅 교향곡' 등을, 배경을 고려하며 들려주도록 한다. 아무튼 레퍼토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명곡을 많이 들려주는 것이 좋으며, 질이 빈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셋째, 악곡 선택의 주목적은 학생들을 음악에 친숙하게 하며 음악에 애정을 갖도록 심성을 육성하는 데 있다. 그런데 Gilliland와 Moore는 재즈와 클래식 곡을 같은 사람에게 25회씩 들려주어, 그 관심의 도를 비교하였더니, 좋은 음악은 들으면 들을수록 친밀감이 깊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sup>36)</sup>

따라서 아동이 이미 들어서 아는 악곡을 몇 번이고 반복하여 들려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더 깊게 더 풍부하게 음악을 받아들일 것이다. 또, 감상 씨어클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선곡시키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 (2) 바람직한 응용형

음악 청취는 단순한 수용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재빠르고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가는 과정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음·리듬·연상이나 상상 등 음

---

36) J. L. Mursell / M. Glenn 공저, 전게서, pp.96~97.

악 향수의 각종 원천을 이용하여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든지, 들어서 알아듣게 하든지,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들에게 반응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시켜야 한다.

청취 활동의 신장에 관계 있는 반응의 여러 가지 형에 대하여 알아보면<sup>37)</sup> 우선, ‘문체적 반응’은 음악을 듣고 콧노래를 부른다든지, 무엇인가를 쓰거나 그린다든지 하는 반응이다. 이 반응은 매우 쉽게 불러일으켜져서 간단하게 조작되는 것이므로 교사는 이것에 끌리어 재차 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음악에 대하여 대화를 하든지 쓰든지 할 때 자칫하면 지적인 면이 강조되기 쉽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문체적 반응’을 학생들에게 허용하며 조장하고 요구하였다면 학생들은 진정한 감상이나 음악적 향수의 장면에서 멀어질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문체적 반응’이란 음악에 관한 연상이나 구조적 특징 또는 리듬이나 음질 등을 감득하려는 시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하여 저학년 에 있어서는 항상 아동 자신의 솔직한 반응을 끌어내게 하며 결코 교사가 그 반응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자칫하면 교사는 들려 준 음악에 대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너무 많이 설명하기 쉬운데, 이것은 금물이다.

저학년의 감상에 있어서는 작곡가의 전기나 곡의 연대 따위에 깊이 들어가서는 안되고 오히려 ‘아름다운 음악입니다.’라는 정도의 지시를 주고 들려 준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자기 표현을 하게끔 지도하여야 하며 중학년까지는 기술적 해설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중학년의 단계라 할지라도 간단한 지식으로서가 아닌 보다 풍부한 감상을 위하여 흥미 있는 직접적 방법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작적 반응은 음악에 대한 감정을 구체적 동작을 통하여 표현하도

---

37) 유덕희, 전제서, p.198.

록 조장하는 것이다. 즉, 발 구르기·행진·스킵 등을 시킨다든지 또는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든다든지 하는 것이다. 또 음악의 흐름에 따라 프레이즈의 시작과 종결을 동작으로 지시하는 학습이며, 그 음악의 새 주제가 나오는 곳이나 재현의 장소를 동작으로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각종의 동작적 반응은 리듬에 주목시킨다든지 음악의 짜임을 알게 하는 데에 매우 가치 높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은 완전한 감상 계획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셋째, '내면적 반응'으로 이에 관해서는 데이비슨이 '위대한 악곡은 하등의 해설도 없이 그저 조용히 듣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끔 학생들에게 아무런 예고나, 해설 없이 그저 조용히 듣는 경험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도입적 해설은 최소한도로 그쳐야 할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의 감상에서는 '이제부터 무엇인가 즐거운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정도의 암시 이상의 해설은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음악 반응의 최상의 하나는 스스로 그 음악을 연주하여 보는 것으로 이것은 청취나 감상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상당한 위치를 갖게 하는 것이다. 흔히 유치원에서는 선생의 노래에 원아들이 따라 부르는데, 같은 방법을 고등학생에게 적용시켜도 무방하다.<sup>38)</sup>

청취 활동에서 큰 목적의 하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곡목 또는 언젠가 배우고 싶다고 원하던 곡을 레퍼터리로서 받아들여 몸에 익히는 것이다.

### (3) 방법상의 요점

- ① 청취 계획은 뭐니뭐니해도 전측이다.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양질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고 사용법을 충분히 익혀 두도록 할 필

---

38) J. L. Mursell / M. Glenn 공저, 전게서, pp.100~102.

요가 있다.

- ② 그렇다고 전축에만 기대해서는 안 되며, 교사 자신의 연주나 외부에서의 연주가의 초빙, 또는 학생 자신의 연주도 매우 유효하다. 이 방법은 개인적인 친밀감이 생기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 ③ 청취할 때 환경의 설정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나쁜 분위기는 감상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 ④ 신곡의 경우 될 수 있는 한 해설을 적게 해야 한다. 길고도 지루한 전기나 기술적 해설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기대 적인 바른 분위기의 설정에 따라 음악의 힘과 정신을 충분히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 ⑤ 신곡일 경우는 미리 주제와 친숙하게 해 놓고, 연주할 때 주제가 나오면 주의시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지적하도록 한다.
- ⑥ 음색이나 음질에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하여 학습할 때 오케스트라의 악기를 보며 그 음색을 실제로 들려준다. 다음에 그 악기를 사용한 악곡을 들려준다. 또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다음에는 레코오드에 나오는 악기의 이름이나 짜임을 질문하는 것도 좋겠다.
- ⑦ 상세한 점에까지 신경을 쓴다. 이를테면 교실의 배치, 학생의 배열, 악기의 취급 등, 단 방법을 고정시키지 말고 항상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다채로운 청취 계획 속에서만이 보다 창조적인 감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곡목의 풍부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학생의 음악적 흥미에 넓게 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 ⑧ 청취 활동은 계획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명백한 목적과 결과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듣는가를 알아냄으로써 듣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을 알아야 한다.
- ⑨ 집단 및 개인으로서의 자발성이나 자유로운 반응을 조장시켜야 한다.

학생이나 교사의 기대에 따라 음악에의 감정이 육성되는 것은 아니고, 학생 자신의 흥미와 의지에 따라 음악에의 애정이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⑩ 교사 자신이 실험적 태도와 학습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교사는 감상과 발전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어린이에게 이상적인 정확함으로 음악에의 애착을 길러내는 기술을 가진 사람도 없을 것이며, 또한 어린이만큼의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5) 음악 감상 교육의 단계

미국의 현대 작곡가 Aaron Copland는 음악감상의 단계를 감각적 파악의 단계(senseous plane), 표현력 감지의 단계(expressive plane), 이해와 평가의 단계(sheerly musical plane)로 나누었다.<sup>39)</sup>

##### (1) 감각적 파악의 단계(sensuous plane)

이 단계는 작곡가나 연주가의 생각과 의도와는 관계없이 음악의 흐름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음악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저 즐기는 단계이다. 음악을 듣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음악을 접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음악과 친숙해질 수 있는 여건과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그 학습 형태도 음악 이외의 이야기나 묘사 등의 다른 영역에 많이 부과되어야 한다.

##### (2) 표현력 감지의 단계(expressive plane)

이 단계는 음악이 가진 표현력을 감지하는 단계이다. 음악의 표현은 항상

---

39) 윤양석, 음악의 이해,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pp.20~22.

음의 언어인 음향을 통해서만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끔 되어 있다. 이 단계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가치 있는 감상은 작곡가의 작품에 보인 주제와 더불어 음악 전체의 독자적인 표현력을 우리들 스스로 느껴 보는 것이다. 같은 음악을 감상하더라도 그것이 주는 느낌과 감동은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른 감정의 세계를 나타나게 된다. 그 주제를 에워싼 감동을 스스로의 마음에 그려보는 것은 음악 이해의 능력을 기르는 좋은 계기가 된다.

### (3) 이해와 평가의 단계(sheerly musical plane)

감상의 제 3단계는 음악의 이해와 가치 평가를 목표로 한 감상의 적극적 단계이다. 음악을 이해한다는 활동은 작품에 담겨진 작곡가의 구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결국 이것은 감상자의 개성과 이해력에 따라 각각 독자적인 감동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감상자에게 있어서는 그 창조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단계도 되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음악감상의 올바른 기준을 설정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는데, 음악감상의 올바른 기준을 설정해 준다는 것은 음악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sup>40)</sup>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구상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이 있다. 구상적인 것은 지적으로 감상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지적이란 악곡의 조성, 박자, 리듬, 화음, 빠르기, 음빛깔, 형식, 악곡이 지어진 시대의 사회적 배경 등 모든 것을 분석하여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음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있어야 하며 감상하기 위한 음악의 기초 연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추상적인 감상 방법이란 음악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일일이 분석하게 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악곡의 내용을 느끼는 것이다. 악곡의 내용이 시적이거나, 문학적이란든지, 또는 슬프다거나 장엄, 쾌활하다거나 등의 느낌을 정

---

40) 유덕희, 음악감상입문, (서울 : 개문사, 1983), pp.97~98.

서적으로 감상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추상적인 감상만으로는 음악에 대한 감상이 소홀해지며 주관적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구상적, 추상적 감상 방법이 한데 뭉쳐야 비로소 악곡 전체의 느낌을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감상이 된다. 음악 감상학습은 다만 음악을 듣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위에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능력과 그 소리를 의미있는 음향으로 전환, 수용하는 능력, 그리고 악곡의 구조와 그 표현성을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동시에 길러 주는 일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위와 같은 감상학습의 단계와 방법을 거쳐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 6) 음악 감상 교육의 지도 내용

음악 작품의 예술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에, 음악 감상은 보다 의미있는 음악적 경험이 될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인간적 경험이 된다. 또한 음악적 능력의 발달과 음악적 심성의 계발에 도움이 되며, 결국 인간적 성숙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감상을 통해 음악적 감동과 풍부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지도 내용으로 음악 감상교육을 해야 한다.<sup>41)</sup>

첫째, 음향현상에 대해 예민한 청각각을 길러 준다. 소리의 같고 다름에 주의를 기울여 분별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음 현상에서 받은 느낌을 신체로 표현하도록 이끄는 것이 청각각의 발달을 돕는다. 특히, 초보 단계의 음악 감상 자에게는 음악에 따른 신체 반응이 박자, 가락, 빠르기, 셈여림, 형식, 음색, 등의 음악적 요소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좋다.

---

41)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0), pp.188~190.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율동들은 대개가 가사와 박에 따른 동작이다. 그것은 박자에 맞추어 움직이고, 춤추고, 손뼉으로 박을 치며 노래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반주를 만들어 치고, 여러 박자의 흐름이나 가락을 듣고 가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음악 학습에서 강조되는 신체 표현은 음악적 요소들과 관련되는 움직임을 뜻하며, 음향에 따라 몸을 의미 있게 움직이려고 노력할 때 청각각은 자극되고 활발하게 기능하며 발달하게 된다.

둘째, 음악감상은 통합된 음악 경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음악 수업이 주어진 시간 안에 가창이나 기악의 한 활동에 국한하여 전개되는 경우, 음악에 관련된 지식이나 이해는 음악 이론 시간에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업에서는 하나의 개념 또는 원리와 한 가지 행위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다른 개념들, 다른 행위들과의 통합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야 한다.

셋째, '악곡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작품과 그 표현의 예술성 및 질은 어떠한가'에 대한 관심은 음악양식의 다양성에 눈뜨게 하고 보다 질 높은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넷째, 악보를 읽으면서 감상하도록 지도한다. 악보를 사용하는 능력은 음악 행위 능력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 속한다. 그것은 연주와 창작을 비롯한 모든 음악 활동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음악수업을 통해 반드시 습득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음악 능력의 하나이다. 악보를 통한 음악 감상은 보다 깊이 있는 감상이 되게 하고, 악곡의 조성, 화성, 형식적 구조, 양식 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악곡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 준다.

다섯째, 악곡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실들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다. 악곡을 감상하기 전이나 후에 작곡가와 작곡된 시대적 사회적 배경, 연

주자 등을 감상 곡과 관련지어 살펴보는 것은 감상할 곡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곡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sup>42)</sup>

### 7) 감상 지도 방법의 유형

음악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란 음악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으며 어떤 음악 작품의 경우에는 그 작품 특유의 어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음악에 대한 지식을 몸에 익혀야만 된다. 그래서 모든 곡들에는 그것에 알맞은 감상법이 필요한 것이다.

음악감상의 대상은 음악 미이며 음악감상교육은 감상의 대상이 되는 미를 그 내용으로 하여 공부하는 것이다. 음악감상은 감각을 바탕으로 직관과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것이 나아가서는 미적인 판단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감상은 감각으로 시작하여 감정을 통해 정착하는 심리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음악을 들었을 때 음악적 경험과 훈련이 전혀 없었다면 음악은 단순한 음향으로밖에 들리지 않으므로 여기에는 아무런 감정도 미적 향수도 느낄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음악적 이해가 있어야 거기에 따른 정서가 생기게 되고 비로소 미적인 향수 즉, 감상이 성립되는 것이다. 음악적 이해란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질서를 음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음악적 이해는 음악감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면이며 음악에 대한 지적인 이해도 감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상을 통해서 음악적인 성장발전의 토대를 세우기 위한 지도 방법적인 문제는 어느 특수한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적 상황에 적용한 형태로서 나타나야 한다. 음악을 듣고 일어나는 정서나 미적 감동은 각 개인의 개성적인 마음의 활동임으로 일방적으로 가르쳐서 이루어지는

---

42) 유덕희, 음악교육학 개론, (서울 : 학문사, 1982), p.306.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감상지도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음악을 들으려는 의욕을 자극하여, 스스로 음악 미를 추구하는 정신과 태도를 기르며 악전의 각 부분에 착안하여 내용을 추구하는 동시에 전체를 한층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sup>43)</sup> 즉, 종합-분석-종합의 경로를 거쳐 음악의 본질적인 원리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다음은 효과적인 감상지도를 위한 여러 학자들의 지도방법인데 유덕희의 『음악교육학개론』에는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44)</sup>

- 성악과 기악의 차이점 감상
- 음악의 시대양식별 감상
- 기악곡의 종류별 감상
- 성악곡의 종류별 감상
- 기악의 연주형태별 감상
- 성악의 연주형태별 감상
- 감상한 곡과 관련이 있는 곡을 들어본다.
- 단음으로 학습한 곡을 합창곡으로 들어본다.
- 가창 곡으로 학습한 교재를 성악가들의 레코드로 들어본다.

J.A.Mussulman의 ‘음악의 효용과 활용’에서는 감상지도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45)</sup>

- 서구문명에 속하는 음악과 기타 다른 문화의 음악을 듣고 비교하며

43) 남 노우, 음악감상교육, (서울 : 서울초등음악회보 제2호, 1986), p.3.

44) 유덕희, 전게서, pp.299~312.

45) J.A.Mussulman, 김창성역, 음악의 효능과 활용, (서울 : 태림출판사, 1983), pp.268~269.

차이점을 규명한다.

- 한 작품을 감상하고 전체적인 그 작품의 시대적 양식과 구성요소를 말한다.
- 한 작품을 감상하고 전체적인 면과 자세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비평한다.
- 연주회음악과 레코드음악의 상대적인 가치 혹은 한계점을 말한다.
- 생음악 연주를 듣고 느낀 바를 주관적으로 비평한다.
- 주위에서 들리는 실존 음과 음악의 다른 점을 자세히 비교, 검토한다.
- 신호용 음악의 효과적인 기능은 음악의 어떤 양식과 역할에 해당하는가를 알아본다.
- 영화의 배경효과를 내기 위한 영화음악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5음 음계의 음악을 직접 창작해서 들어본다.
- 녹음 테이프를 이용한 음악의 창작을 경험하고 들어본다.
- 우연성 음악은 꾸며보며 기록하고 연주하여 본다.

상술한 바와 같이,

아동들에게 흥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를 유도하여 음악적 감각, 창의성, 음의 기억력을 점차 발전해 나가고 감각적 지성이 뒷받침해 주는 음악감상이야말로 올바른 음악감상의 지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3. 음악 감상과 아동의 정서 함양과의 관계

#### 1) 아동기의 특성

6~7세 경부터 7~8세까지는 유아기의 연장이며, 10~11세부터 11~12세

경은 심신의 발달 면으로 보아 청년기에 해당될 수 있는 아동들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아 아동기의 중심은 10세 전후에 있다고 보는데, 이 시기는 음악적 능력의 발달 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특색이 있는 시기이다. 그래서 10세를 전후해서 음악성이나 또는 음악적 능력은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Haecker 와 Ziehen의 연구』<sup>46)</sup>에 의하면 음악적 능력은 남·여아 모두 10세까지 발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10세 이후의 감소가 급속하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그리고 ‘음악적 능력의 발견은 두 개의 큰 정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10세를 정점으로 해서 11세에서는 급격한 감소를 보이나, 12세에서는 적지만 다시 상승을 보이다가 그 이후는 계속 하강하고 있다.’는 것이다. 4세에 이미 경이적인 재능을 보였다는 Mozart의 예를 보아도 음악적 능력의 발달은 다른 능력에 비해 극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감퇴의 시기나 속도 또한 빠르다고 한다. 따라서 아동기야말로 음악적 능력 발달의 최종의 기회이며, 이는 바로 바람직한 음악적 도야에서의 최적의 시기임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기라고 하여도 그 초기는 자기중심적이고 직접 경험의 세계만에 흥미가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아기의 연장이라고도 보아진다. 그러나 음악적 능력의 면에서는 6세 이후 해가 갈수록 빨리 발달해 가는데, Pfloderer의 조사(1964)에 의하면, ‘8세아는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가 불명확한 것과, 음을 조직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은 6,7세 이하의 유아와 별다른 것이 없지만, 리듬을 지각하는 능력은 유아기에 비하여 훨씬 확실함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 정도는 5세아의 68%에 비하여 8세아는 80%라고 한다. 아동기의 흥미와 반응의 중심은 뛰니뛰니해도 리듬, 멜로디이며, 하모니에의 관심은 비교적 희박하다고 보고하고

---

46) Haecker von & Ziehen, T., Zur Verbung und Enywiclung der Musikalischen Begabong, 1922, p.170.

있다.<sup>47)</sup>

Stamback도 리듬의 지각 면에서는 Pfleiderer와 거의 비슷한 견해를 보고 (1960)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6세아는 약간 불규칙한 리듬에는 자신이 없다가 9~10세경이 되면 비교적 복잡한 리듬에도 잘 반응한다고 말하고 있다.<sup>48)</sup> 아동중기, 즉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에 걸쳐서 심신의 발달적 특색 중 음악적 능력의 발달과 특히 관계가 깊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에 대한 개념이 2학년부터 점차로 상승하여 3학년에서 급속하게 발달한다.
- 손끝의 발달도 2학년 때부터 점차로 상승하여 3~4학년에서는 거의 완성한다.
- 대체적으로 9세를 전환점으로 시각이 청각보다 우선하게 된다.
- 4학년에서 기계적 기억력이 절정에 달하고, 이때부터 지적 이해가 점차로 발달하여 간다.
- 3학년부터 4학년에 걸쳐서는 자기중심적인 자세에서 점차적으로 감소해서 집단생활에도 잘 적응하며 협조성이 발달되어 간다.

이상과 같은 발달 특징들은 음악적 능력의 특징과도 관계가 깊은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수 개념의 발달이나 시각의 우선적 사실은 독보능력을 조장시킨다.
- 손끝의 발달의 완성은 기악적인 능력을 촉진시킨다.
- 왕성한 기계적 기억력은 애창곡의 레퍼터리를 넓혀 준다.

---

47) 유덕희, 아동발달과 음악교육, (서울 : 개문사, 1983), p.83.

48) 상계서, p.84.

- 지적 이해력의 발달은 악전사항의 학습을 용이하게 한다.
- 협조성의 발달은 합창이나 합주를 효과적으로 이끈다.

그 외로도 아동 중기는 흥미나 관심의 초점이 이제까지의 자기본위적인 것에서부터 외면적인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감정이나 정서의 움직임이 풍요해 지며, 교재 면에서도 밝고 리드미컬한 것 외에 우아하고, 슬프고, 조용한 것, 등과 같은 표정을 갖는 것에 점차로 관심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동 중기야말로 음악적 성장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초등학교의 저학년과 고학년과의 무게를 두기 쉬운 음악 학습 상에서의 일반적 풍조는 이러한 기본적인 면에서 보아도 그 인식이 바뀌어져야 한다. 또한 아동 후기의 발달적 특색 중에서 음악적 능력의 발달과 특히 관계가 깊은 것에는 지적 능력의 발달과 신체적 동작의 정확함이 있고, 창조적으로는 화음의 흥미와 이에 수반되는 합창이나 합주에의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때에 급속하게 발달하는 협조성과도 아주 관계가 깊은 것이다.

## 2) 음악과 정서

음악은 가장 정서적인 예술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고조된 감정을 나타낼 수 있고 인간의 마음속 깊이 호소하여 정서 및 정조에 작용한다.

음악은 인간의 내면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예술활동이다. 아름다운 음악은 정서의 안정을 가져오며 우리들의 마음을 밝고 풍요하게 하여 준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위로해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음악을 갈망한다. 또한 음악에는 인간의 정신적인 면에 강한 감화력을 주는 요소가 있다. 일반적으로 슬플 때의 목소리는 낮고 약하며 즐거울 때의 목소리는

풍부하고 크다. 따라서 음악은 인간의 정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음악은 인간성을 완성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인간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생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49)</sup>

음악교육에 특히 관계가 깊은 정서(Emotion)와 정조(Sentiment)도 일종의 감각작용(Feeling)이다. 감각작용이란 쾌감이라든가 불쾌감과 같이 어느 대상을 보고, 듣고서, 마음이 막연하게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며, 자신의 기분이라는 점에서는 외계의 자극을 인지할 만큼의 감각이나 지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정서란 희·노와 같은 감정이 비교적 강화된 상태이다. 정서의 특징은 대단히 강하고도 짧으며, 안면의 표정이나 호흡 등의 생리적인 수반 현상을 일으키는 것, 지각이나 성격에도 영향을 주어 행동을 촉진시키는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정서는 극히 동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동’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감정과 정서는 위에서처럼 구별되어서 논의될 때도 많으나 엄밀히는 구별이 어려운 것으로 감정과 정서를 합쳐 ‘감동’이라고 하며, 인식이라든가 의지와 같은 정신 작용과 구별하는 경우도 있다. 음악적 정서는 사람의 내면과 음악의 지속적인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음악에 대한 감정 상태를 뜻한다. 그것은 음악 작품과의 만남과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의미를 발견한다. 그와 동시에 타인의 느낌과 감정을 수용하고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는 지속적인 경험으로부터 형성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람은 음악 체험이 자기 표현의 길로서 정신적 충족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며, 음악을 통하여 타인의 느낌과 감정을 민감하게 감지하거나 자신의 느낌과 감정

---

49) 유덕희, 음악교육학개론, (서울 : 학문사, 1981), pp.13~14



을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sup>50)</sup>

음악교육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유아기나 아동기에 ‘음악적 감동’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시기에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서 아동들이 풍부한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 3) 음악감상이 아동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환경에 의한 소음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거의 일방적으로 자극을 주고 있다. 가장 크고 기본적인 영향은 가정환경에 있다. 음악적 능력은 특히 유아기의 성장 과정에 있어 중요한 인격형성의 기초를 만들게 한다. 바람직한 가정환경이라 하면 첫째, 민주적이며 명랑하고 즐거운 가정이다. 즉 어린이들이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고 생활하려는 의욕을 충분히 이해하며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온 가족들이 음악에 관심을 갖는 가정으로 되도록 음악을 적극적인 생활이 되도록 끌어들이는 가정이다. 셋째, 어린이가 자유로이 다루며 실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간단한 악기 정도는 가정에 비치되어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넷째, 감상을 할 수 있는 라디오나 전축, 녹음기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에게 필요한 음악을 들려주는 일이다. 어린이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음악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어린이에게 필요한 음악이라 하면 밝고 명랑하며 상쾌한 음악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음악을 일상 생활 속에 주입시킴으로써 ‘청각에 의한 심미적 발달’을 초래하여 원활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0) 이홍수, op. cit., pp.296~298.

### (1) 음악을 통한 운동 감각의 발달

음악의 기본적인 요소인 리듬 지각에 관계가 깊은 것은 운동 감각이다. 이 감각에는 시각, 청각, 평형감각 등과 같은 공간 인지의 모든 감각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근육의 수축이라든가 근육의 긴장 및 자극에 의한 운동 감각이나 위치 감각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운동 감각은 자질이나 연습 정도에 따라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발달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얻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 R.H.Mussen에 의하면 “근육과 신경의 발달은 영이기부터 유아기의 보행 초기에 급속하게 발달하며, 이 운동 감각은 성장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sup>51)</sup> 따라서 음악과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운동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리듬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 (2) 음악을 통한 지각의 발달

지각이란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현상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아는 작용을 말한다. 즉, 음악이나 음악 학습에 있어서 모든 경험한 내용은 듣는 감각 기관에 의해서 생기는 지각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발달은 일반적으로 유아기, 아동기의 모든 감각의 발달에 따라 정점에 달한다. 따라서 지각의 적절한 지도가 그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음악적인 면에서 보면 절대 음이나 음악적 미에 대한 감각은 유아기부터 아동기에 이르는 동안 급격히 발달한다. 때문에 유아기에 음악적 자극을 주어 바람직한 발전을 도모하고 풍부한 인격형성을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Forbes의 연구에 의하면 “신생아는 생후 1주일이 되었을 때 이미 음에

---

51) 진야천수, 교육심리학, (서울 : 국지사, 1990), p.47.

반응을 나타낸다.”고 했으며 Peter Wolff는 “신생아는 종소리나 호루라기 소리보다도 사람의 목소리에 대한 반응이 더 강하다.”라고 했다.<sup>52)</sup> 따라서 신생아의 ‘음의 높고 낮은 감각의 발달’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엄마의 목소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의 음악적 감각의 발달 시기는 언어에 반응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엄마의 노래 소리가 어린이의 음악적 발달과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또 음에 대한 반응은 리드미컬한 음악에 대한 반응보다 멜로디에 의한 반응이 강하며, 화음에 대한 반응은 그보다 더 강하다고 한다. 또 자극적인 곡이 조용한 곡보다 반응이 강하다. 결국 신생아 시기부터 음악의 영향을 받으므로 성장과정에서 음악 감상은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다. 음에 대한 반응은 어린이의 경우 아주 일찍부터 청각을 주체로 한 생득적인 기능반응의 발견으로써 인지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는 자극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음을 만들어 내는 본능도 갖추고 있다.



어린이의 가창력은 Gesell의 조사에 의하면 생후 2년이 되면 불확실하기는 하나 노래의 1절을 노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며 4세쯤 되면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 전체를 노래할 수 있는 어린이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어린이의 청각이 장음계와 단음계의 조직적인 음계에 순응하는 것은 대개 6세부터 9세 사이라고 한다.(단, 조사에 쓰인 노래의 종류나 노래 부르는 방법, 사전 연습의 정도, 가정 환경, 발성 기관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동기의 중심은 10세 전후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음악적 능력의 발달 면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Haeker 와 Ziehen의 조사에 의하면 음악적 능력의 발견 시기는 다음과 같다.<sup>53)</sup>

52) 유덕희, 전계서, pp.78~88.

53) 유덕희, 아동발달과 음악교육, (서울 : 개문사, 1983), pp.82~84.

연 령	2 ~5	6~10	11~15	16~20	총 계
조사대상 인원	131	106	38	9	284
(남)	46.1%	37.3%	13.4%	3.2%	
조사대상 인원	74	68	13	2	157
(여)	47%	43.8%	8.3%	1.3%	

위의 표에 의하면 음악적 능력은 남녀 모두 10세 까지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10세 이후의 감소가 매우 급속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음악적 능력은 다른 능력에 비해 그 발견이 극히 빠르다는 것이다. 때문에 아동기야말로 음악적 능력의 최종 기회이며 또한 바람직한 음악적 교육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정리해 보면



첫째, 우리는 음악의 미학적인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여야만 그 다음의 적용이 가능한 순리적인 까닭이다.

둘째, 음악의 기능이다. 음악이라는 한 예술 영역은 음의 고저 장단을 통하여 실현되는데 운율은 인간의 감수능력이 매우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접근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음악이 예술로서의 정서 기능이나 치료 기능 등을 이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만한 인격형성에 대한 기여도 인식할 수 있다.

셋째, 음악 교육의 필요성이다. 근본적으로 교육의 영역에서 인간 성장을 살펴볼 때 이미 그 성장 곡선은 유아기 때일수록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연관시킨다면 원만하고 정서적인 인격을 갖춘 어린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음악 감상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Ⅲ. 연구 방법

#### A.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인 음악 감상이 아동의 정서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2000년 현재 제주도 제주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5,6학년 재학생인 표집된 681명 중 설문조사에 참가한 인원은 총 674명이었으나 실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로 판단되거나 조사 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24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650명이었다.



#### B.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김영식(1993)이 그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음악 감상 수업에 관련된 항목 6문항과 가정 및 교외에서의 음악 활동에 관한 항목 5문항, 그리고 대중 음악감상과 관련된 항목 4문항으로 되어 있다.

예비 검사(Pilot test)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첫 번째 예비 검사는 제주시 소재 초등학교 5,6학년 선생님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첫 번째 예비 검사의 목적은 설문 내용의 적합성 및 설문 문항이 아동들에게 적용 가능한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예비 검사에서는 본 연구자가 설문 내용을 한 문항씩 설명한 다음 조사 대상자에게 설문 응답시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는 단어나

문장 혹은 내용을 지적하도록 요구했으며, 지적된 사항은 두 번째 예비 검사 설문지 개정시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두 번째 예비 검사는 본 연구의 모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제주시 소재 초등학교 5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두 번째 예비 검사의 목적은 첫 번째 예비 검사를 통하여 수정된 설문지 내용의 적합성을 평가함과 아울러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두 번째 예비 검사에서는 응답자로 하여금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과 더불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문항이나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지적하여 주도록 요구한 다음, 제기된 문제는 본 조사 설문지 작성시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 C. 아동들의 감상 교육 설문 결과 분석

#### 1. 음악 감상 수업에 관한 실태조사

음악 감상 수업에 관한 실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 음악 수업 중 가장 좋아하는 영역

내용	응답자수	응답자 수	응답률(%)
1. 가창		186	30.2%
2. 기악		116	17.8%
3. 감상		328	50.4%
4. 작곡 및 이론		10	1.6%
계		650	100%

<표-1>에 의하면 음악 시간 중에 선호하는 영역이 감상(50.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가창, 기악, 작곡 및 이론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다른 교과는 이론 위주의 수업 방식임에 반하여 음악은 실기를 병행한 수업이므로 아동들은 음악 이론 영역보다는 감상이나 가창영역에 더 흥미를 느낀다. 따라서 음악 감상 수업을 흥미롭고 유익하게 진행된다면 학습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표-2> 음악 감상수업에 대한 관심도

내용	응답자 수	응답률(%)
1.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한다.	160	24.6%
2. 아는 곡이면 열심히 참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	96	14.8%
3. 잘 하고 싶지만 악보나 설명이 불충분하여 흥미가 없다.	327	50.3%
4. 관심 없다.	67	10.3%
계	650	100%

<표-2>에 의하면 잘 듣고 싶지만 악보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답한 아동이 50.3%로 나타났다. 고전 음악은 이해하기 어렵고 지루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곡 해설과 다양한 지도 방법이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표-3>에 의하면 교양을 쌓을 수 있다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위의 결과로 볼 때 아동들은 음악 감상수업의 근본 목적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정서 순화가 된다가 34.0%, 인격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20.9%로 나타났다.

<표-3> 학교 음악 감상이 미치는 영향력

내용	응답자수	응답자 수	응답률(%)
1. 인격형성에 도움이 된다.		136	20.9%
2. 교양을 쌓을 수 있다.		266	40.9%
3. 장래 꿈을 심어 준다.		27	4.2%
4. 정서 순화가 된다.		221	34.0%
계		650	100%

<표-4>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

내용	응답자수	응답자 수	응답률(%)
1. 그냥 듣는다.		425	65.5%
2. 해설과 설명을 듣고 감상한다.		96	30.0%
3.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고 난 후 감상한다.		29	4.5%
계		650	100%

<표-4>에서 감상하는 방법은 그냥 듣는다가 65.5%, 해설과 설명을 듣고 감상한다가 30.0%,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고 난 후 감상한다가 4.5%로 나타나고 있어 감상하는 방법이 그냥 듣는 데 그치고 있다.

<표-5>에서 고전 음악 감상은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가 54.8%, 정서적으로 약간의 도움이 되는 것 같다가 25.4%,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가 5.0%, 나쁜 영향을 준다가 0%, 잘 모르겠다가 14.8%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고와 약간의 도움을 준다'는 전체의 80%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전 음악에 대한 아동 스스로의 생각과 선입견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5> 고전 음악감상이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내용	응답자수	응답자 수	응답률(%)
1.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356	54.8%
2. 정서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준다.		165	25.4%
3. 별 도움이 되지 못 한다.		32	5.0%
4. 나쁜 영향을 준다.		0	0%
5. 잘 모르겠다.		97	14.8%
계		650	100%

<표-6> 감상 영역에 흥미를 갖는 이유

내용	응답자수	응답자 수	응답률(%)
1. 선생님께서 감상 곡에 얽힌 에피소드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어서		261	40.2%
2. 그냥 음악을 듣는 것이 좋아서		116	17.8%
3. 정서 순화가 되어서		56	8.6%
4. 음악을 들으면 마음껏 생각이나 상상을 할 수가 있어서		143	22.0%
5. 가만히 앉아 있어서		74	11.4%
계		650	100%

<표-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생님께서 감상 곡에 얽힌 에피소드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어서 감상에 흥미를 갖는다가 40.2%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음악을 담당할 교사는 아동들이 음악을 좀더 깊이 이해하고 친숙해 질 수 있도록 곡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이야기를 수집해서 들

려주는 성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문항 2, 3, 4번은 48.4%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동기에 있어 음악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새삼 느끼게 한다. 이에 음악 교사는 건전한 곡을 골라 들려줌으로써 아동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음악 속에서 음악과 함께 생활하며 튼튼하고 건강한 사고력이 영글어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과 선생님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2. 가정 및 교외에서의 음악 활동 실태 조사

가정 및 교외에서의 음악 활동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7> 가정에서의 하루 평균 음악 감상 시간

내용	응답자수	응답자 수	응답률(%)
1. 30분 이내		409	62.9%
2. 1 시간 정도 2. 기악		131	20.1%
3. 1시간 이상		57	8.8%
4. 전혀 하지 않는다.		53	8.2%
계		650	100%

<표-7>에 의하면 가정에서 하루 평균 감상 시간은 30분 이내가 62.9%로 가장 높았고, 한 시간 정도가 20.1%, 1시간 이상이 8.8%, 전혀 하지 않는다 가 8.2%로 나타났다. 30분 이내와 1시간 정도가 전체의 83%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아동들이 1시간 미만의 감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8>에 의하면 음악회가 열릴 때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가 63.4%, 마

음에 드는 연주자나 마음에 드는 곡일 때만 간다가 20.3%, 권유에 의해서 억지로 간다가 10.0%로 나타나 진정한 의미에서 바람직한 음악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가 63.42%나 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지식 위주의 교육의 단면을 보여 주는 한 예라 하겠다.

<표-8> 음악회 참가도

내용	응답자수	응답자 수	응답률(%)
1. 권유에 의해서 억지로 간다.		65	10.0%
2.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412	63.4%
3. 마음에 드는 연주자나 마음에 드는 곡일 때만 간다.		132	20.3%
4. 음악회마다 간다.		29	4.5
5. 관심 없다.		12	1.8
계		650	100%

<표-9> 음악 감상을 하지 않는 이유

내용	응답자수	응답자 수	응답률(%)
1.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125	19.3%
2. 시설 부족으로(감상곡이나 오디오가 없어서)		363	55.8%
3. 음악 자체가 싫으므로		27	4.2%
4. 이해할 수가 없으므로		135	20.7%
계		650	100%

<표-9>에 의하면 음악 감상을 못하는 이유는 시설 부족으로가 35.8%,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가 39.3%, 이해할 수 없으므로가 20.7%, 음악 자

체가 싫어서가 4,2%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가 39,3%나 된다는 것은 초등학교 아동들의 경우도 5,6학년이 되면 영어나 컴퓨터, 중학교 대비학원 등 입시 위주의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표-10> 감상 시간에 감상한 곡을 학교 외에서 들어본 경험

내용	응답자수	응답자 수	응답률(%)
1. 많다.		63	9.7%
2. 조금 있다.		48	7.4%
3. 거의 없다.		398	61.2%
4. 한 번도 없다.		141	21.7%
계		650	100%

<표-10>에서 보면 감상시간에 감상한 곡을 방송매체나 공연장에서 들어본 경험은 거의 없다가 61.2%, 한 번도 없다가 21.7%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아동들이 방과 후 집에서 방송 매체를 접하게 되는 시간대에 고전 음악에 대한 방송의 비율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즉, 각 방송사는 아동들의 정서와 교양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시청률에만 치중한 오락 위주의 프로그램에 몰두하고 있고, 또한 우리 나라의 아동들이 고전 음악 연주회에 참가할 시간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전 음악을 많이 감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전 음악 프로그램을 더 늘려야 하겠고, 고전 음악과 대중음악을 접목시킨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하여 아동들로 하여금 대중음악과 고전 음악간의 거리감을 없애고 다양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 D. 대중 음악

### 1. 대중 음악의 정의

대중음악은 주로 시대와 사회의 감각에 맞는 가사와 가락의 형태로 만들어져 대중 속에서 널리 불리는 노래를 뜻한다. 19C말까지는 대중음악도 지역별로 특징이 뚜렷했으나, 현대에 들어와서 방송과 녹음 및 녹화 기기의 발달로 지역의 특징은 점차 퇴색되고, 특히 방송의 주도아래 주된 경향이 형성되고 있다. 대중음악은 효용적 기능의 음악 중에서도 오락을 위한 목적에 비중을 두며, 연주자의 즉흥성과 창의적 표현이 최대한 허용된다.

Grove Dictionary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중음악은 대략 18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대중을 지칭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대중음악을 정의하였다.

- 대다수 인구에게 이해될 수 있고 연주되어질 수 있는 음악, 즉 수용하는 대상의 범위가 어떤 특정한 소수 층이 아닌 광범위한 것
- 특별한 음악적 훈련이나 음악이론 없이도 감상이 가능한 음악
- 대중음악은 단순한 구조와 한정된 길이, 그리고 멜로디 위주의 음악으로서 제한된 화성적 반주를 가진 것 등으로 구성된다.<sup>54)</sup>

대중음악은 20C에 발달된 기계문명의 도움으로 예술음악과는 분리되었다. 이렇듯 예술음악과 대중음악이 갈라지게 된 것은 19C 이후의 현상이다. 이러한 대립이 서서히 느껴지게 된 것은 19C 낭만파 음악가들이 독창성과 개성 추구를 위한 급속한 음악양식, 기법의 발달과 그 음악을 감상하는 청

54) 신용철, 새 우리말 큰사전, (서울 : 삼성출판사, 1978), p.839.

중의 수준이 병행되지 못했던 이유에서이다.

기술과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 음악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음악의 내용도 증폭되고, 단순화되면서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었다. 광범위한 대중들을 대상으로 음악이 시장성을 가지려면, 많은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 이렇듯 대중음악은 모든 대중예술이 그러하듯이 그것을 향유하는 대중들의 정서에 기반하고 있다. 대중들의 정서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총체적으로 드러내며, 그러한 면에서 모든 대중음악은 그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2. 대중음악의 특성과 문제점

우리 나라의 아동들은 가장 순수하고 감상적이며 인간적이어야 할 시기에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교 공부가 끝나면 학원을 몇 군데나 다녀야 하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다. 이 시기에 조용하면서도 생각할 수 있고, 아름답고 친근감이 감도는 음악은 그들의 메마르기 쉬운 정서를 풍요롭게 해 주고, 생활에서의 피로를 풀어주며, 그들의 순수성을 되찾아주고, 아직도 형성단계에 있는 그들의 인격과 사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sup>55)</sup>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학교와 사회의 음악이 이러한 조건에 맞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아동들은 음악의 이중 구조에 어쩔 수 없이 간혀 있어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음악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고전음악과 전통음악을 배운다. 그런데 실제 그들이 일상에서 듣는 음악은 쉽고 감각적인 대중음악이다. 날이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아동들의 감수성에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항상 신선한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음악이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노래에는 새로움이 없다. 교과서를 채우는 음악의 교육과정은 시간이 흘러가도 좀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

55) 손태룡, 한국음악의 인식과 비평, (서울 : 증문출판사, 1995), pp.35~36

다.<sup>56)</sup> 결국 아동들은 대중 매체를 통해 신선한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대중 음악을 들으면서 그들의 욕구를 채우고 있다.

아동들은 텔레비전, 라디오 매체에 노출되어 있고 대중매체의 주된 청중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대중음악은 아동들의 음악적 환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sup>57)</sup> 아동들은 이미 학교 음악교육의 영향권을 벗어나 대중음악의 영향권으로 들어갔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아동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화적 산물인 대중음악의 특성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음악은 머리로 생각하는 음악이라기 보다는 즉각적인 신체의 반응을 목표로 하는 음악이다. 예술음악은 청취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듣는 청취방식임에 반하여 대중음악은 특정한 청취 태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대중음악 청취의 근본 목적이 고된 노동에서 탈피한 휴식, 기분 전환, 오락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생산성이나 창의성보다는 오락 지향적인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

둘째, 대중가요는 선율과 리듬 그리고 화성에 있어서 단순성, 또는 지나치게 반복성이 많다. 그래서 단시간에 곡을 쉽게 익힐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조적 통일성을 지향하기보다는 세부적 부분성만을 강조하여 각 부분의 효과만이 의미를 가지며 총체적인 통일성도 얻기 어렵다. 이와 같은 부분성의 강조로 순간적인 효과를 부각시키는 데 치중함으로써 소리, 색채, 톤, 비트, 리듬과 같은 개별적인 효과들의 결합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대중음악을 감상함에 있어서 전체보다는 부분들이 더 강한 반응을 느낄 수 있다.

셋째, 지나치게 상업성만을 추구하고 있다. 산업화된 현대에서는 본질적으로 대중가요가 소비되어지기 위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겉보기에는 많은

---

56) 이우용, 우리 대중음악 읽기, (서울 : 창공사, 1996), pp.230~231.

57) 이장직, 대중화시대의 음악,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90), p.234.

종류의 음악이 널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가 획일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sup>58)</sup> 또한 음반 산업은 획일화·규격화된 그들의 상품성을 감추기 위하여 ‘독특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소비자들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많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음악보다는 대중의 욕구에 부합한 음악을 많이 만들게 되고 많은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추구하는 음악세계와 음악 시장이 요구하는 대중성 사이에서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작곡자·연주자의 창조적 자발성은 사라져가고 예술성이 높은 곡보다는 대중의 감수성에 맞는 곡이 많이 작곡된다.

넷째, 가사의 내용이 직감적이다. 대중가요의 가사 내용은 시적 예술성이 없이 찰나적인 감정, 즉흥적인 대중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정서를 불안하게 하며 악영향을 끼친다.

### 3. 아동들의 대중 음악에 대한 설문 결과 분석

<표-11> 아동들의 음악에 대한 흥미도

내용	응답자수	응답자 수	응답률(%)
1. 팝 음악(다른 나라의 가요)		188	28.9%
2. 클래식(모차르트나 베토벤과 같은 음악가의 곡)		70	10.57%
3. 국악		13	2.0%
4. 가곡		81	12.5%
5. 대중 가요		298	45.9%
계		650	100%

58) 이장직, 음악과 사회, (서울 : 청하출판사, 1988), pp.78~80.



<표-11>에 의하면 아동의 음악에 대한 흥미 도는 대중 가요가 45.9%로 약 절반을 차지하며, 팝송이 28.9%, 클래식이 10.7%, 가곡이 12.5%, 국악이 2.0%로 나타났다. 대중가요를 좋아하는 아동의 수가 단연 으뜸인데, 우리 아동들의 정서를 황폐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지만 대중가요의 부정적 영향 못지 않게 대중음악이 갖는 속성상 엄청난 대중적 영향력이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음악 교사는 밝고 건강하며 유익한 곡을 가려서 듣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으며, 국악이 제일 낮은 비율인데, 아동들이 우리 것에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표-12> 대중가요에 대해 흥미를 갖는 이유

내용	응답자수	응답자 수	응답률(%)
1. 현실 생활에 맞는 노래 가사 때문에		73	11.2%
2. 자신의 심정을 노래한 유행가가 많아서		38	5.8%
3. 리듬이 좋아서		118	18.2%
4. 쉽게 부를 수 있어서		249	38.3%
5.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항상 들을 수 있으므로		172	26.5%
계		650	100%

<표-12>에 의하면 대중 가요에 대한 흥미 이유와 좋아하는 까닭을 쉽게 알 수 있다. 쉽게 부를 수 있어서가 38.3%,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자주 들을 수 있어서가 26.5%, 리듬이 좋아서가 18.2%, 현실 생활에 맞는 노래 가사 때문인가 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클래식보다 따라 부르기가 용

이하고 곡의 느낌이 쉽게 와 닿을 뿐만 아니라 TV영상 매체의 영향력으로 쉽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표-13> 대중 음악을 감상할 때의 느낌

내용	응답자수	응답자 수	응답률(%)
1. 기분이 명랑해지고 신이 난다.		454	69.8%
2. 신체적으로 울동을 느끼게 된다.		106	16.3%
3.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슬퍼진다.		53	8.2%
4. 시끄럽고 저속한 느낌이 든다.		37	5.7%
계		650	100%

<표-13>에 의하면 대중 음악을 감상할 때 전체의 69.8%가 기분이 명랑해지고 신이 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대중 음악이 갖고 있는 유희성과 대중성이 표출된 결과로 해석되며, 많은 아동들이 음악을 선택하는 기준은 단순하게 흥미 위주로 즐기려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표-14> 대중 음악을 배우는 기회

내용	응답자수	응답자 수	응답률(%)
1. 방송을 통해서		432	66.5%
2. 친구를 통해서		67	10.3%
3. 음반을 통해서		117	18%
4. 공연장에 가서		34	5.2%
계		650	100%

<표-14>에 의하면 대중 음악을 배우는 방법이 전체의 66.5%가 방송을 통해서 배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들이 방송을 통해서 대중 음악을 배우는 기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방송에서 대중 음악에 치중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대중 매체가 보편화되어 있는 요즘 시대에 아동들은 자신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항상 대중 음악을 접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표-15> 방송 매체에서 고전 음악 감상 경험 조사

내용	응답자수	응답자 수	응답률(%)
1. 많다.		11	1.7%
2. 보통이다.		29	4.5%
3. 거의 없다.		387	59.5%
4. 한 번도 없다.		223	34.3%
계		650	100%

<표-15>에 의하면 라디오나 TV방송에서 고전음악을 청취한 경험이 거의 없다가 59.5%, 한 번도 없다는 34.3%로 나타났고 많다는 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동들이 학교의 감상 시간에는 고전 음악을 감상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고전 음악을 거의 듣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방과 후에 각 방송사의 음악 프로그램이 대부분 대중 음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동들이 더욱 감상할 기회가 많지 않다.

## IV. 논의 및 결론

### A. 논의

음악은 단순하며 직접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인 예술이다. 또한 음악은 인격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 활동에 있어서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음악이 아름다운 정서를 기르고 인격 함양에 도움이 되는데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음악교육의 목적을 정확히 확립하지 못하고 학습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종래의 음악 교육은 입시위주의 음악 지식을 주입시키는 교육으로 음악교육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며 음악을 통하여 정서적인 안정감과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서라는 것은 모든 음악의 기원이며 근저가 된다.’라고 하였으며, 베토벤은 ‘모든 감정은 물론 분노일지라도 음악적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었다. 이와 같이 음악은 반드시 감정이라는 기반 위에서 세워져야하며, 그 속에서 음악의 열매이며 꽃인 정서를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름답고 승화된 정서의 함양이야말로 음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이다.

설문 결과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들이 음악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대중음악이다. 대중음악은 우선 가사가 대중의 일상 생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 가사의 뜻도 쉽게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끌 수 있는 선율로 이루어졌다. 아동들이 대중음악을 들을 때 거부 반응을 갖지 않고 오히려 친근감

을 갖는다는 것이 대중음악의 특징이면서 장점이기도 하다.

교육은 흥미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흥미가 없을 때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져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교육에 있어서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주는 일이다. 어떤 학습이든 흥미가 있게 되면 발전이 빠르고 또한 열심히 학습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음악 시간에 고전 음악과 더불어 대중음악을 접할 경우 대중음악을 통해 고전 음악을 이해하고, 또 고전음악을 통해 대중음악을 이해하게 되어 그 교육적 효과는 크게 향상될 것이라 기대된다.

어린이의 정서 발달도 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유치할지라도 거기서 느껴지는 느낌이 있을 것이고 느낌이 있으면 어린이의 정서 또한 그만큼 발달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도 처음에는 유치한 단계에서 시작되어 차츰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부터 차원 높은 예술적인 음악으로 예능 교육을 시작하여 어린이가 그 음악의 정서적인 내용을 자신의 정서로 수용하기 힘들 때 그 음악 교육은 역기능적인 면이 두드러지게 된다.

어린이가 잘 아는 노래로 피아노를 칠 경우, 우선 멜로디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리듬을 올바르게 칠 수 있어 틀린 부분은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는 악보를 보고 멜로디와 리듬을 찾아내야 하는 고통이 없으므로 흥미를 잃지 않게 된다. 또한 자기가 아는 노래를 피아노로 연주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이 자부심이 있는 한, 이 어린이는 그 음악을 더욱 자주 연주하게 될 것이다. 대중 음악이 어린이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교육에 이용된다면 교육적인 것이 되며, 또한 교육을 맡은 사람도 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위 환경에서 얻는 소재를 교육에 빌어 쓸 수 있는 여유와 융통성을 마련하는 셈이다.

아동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보편화 되어있는 음악형태는 대중음악이며,

특히 아동들의 생활이 대중음악에 크게 개방되어 있다. 그들은 대중음악의 특색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에 대한 흥미도 높으므로 협주곡이나 교향곡을 통해 음악적 개념을 파악하기보다는 대중 음악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더 쉽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음악이 비록 대중 음악이긴 하지만 교육적인 면에서 평가했을 때 성공적인 음악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겠다. 그 반대로 어린이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높은 예술성의 음악을 연주하게 했을 때에는, 그것은 단지 기계적인 반복에 불과하며 기계적인 반복을 계속하는 동안 어린이는 오히려 정서적인 개발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기계화 또는 비인간화 되어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 음악교육에 있어서 대중음악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대중음악의 보완이 시급하다. 대중 음악은 상업성, 가사의 부적절성, 선율과 리듬의 반복성 등을 개선하여 생산적이고 창의적이며 진정한 의미의 쾌락을 추구하게 하거나 건전한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악으로 거듭나야 한다.

학교의 음악 감상 교육도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대중 문화 현상을 무조건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호응하는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그 역기능을 극복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음악교육은 단지 시간만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형식적인 수업이 아니라 건전한 음악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아동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음악교육으로 거듭나야 하고, 대중음악은 보다 건전하게 육성되어서 아동들로 하여금 떳떳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

## B. 결 론

성장기에 있는 아동에게 있어서 음악이 주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음악을 통하여 건강한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음악 감상은 음악의 다른 영역에 비하면 아동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 경험으로 아동들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심리적 측면에서의 음악 감상은 정신 생활을 밝고 명랑하게 하며 표현력이 풍부해 지는 사고를 미치게 하고 있고, 문화적 인간이 될 수 있는 정서 함양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동들은 음악 감상 수업에서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생활에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곡보다는 대중 음악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높았다. 이것은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감상 시설과 변화가 없는 수업 방식 때문이며, 각종 방송 매체를 통한 대중 음악은 아동들에게 무방비로 접하게 되어 고전 음악을 감상하기란 웬만한 관심과 노력 없이는 쉽게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 C. 제 언

본 연구 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아동의 풍요로운 정서 함양에 적합한 음악 감상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아동들로 하여금 고전 음악이 지루하지 않고 더 친숙하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악 감상 수업의 개선이 필요하다. 음악은 소리를 통하

여 전달되기 때문에 훌륭한 음향시설이 음악 감상 수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청각교육에만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시청각 교육의 환경 개선을 통하여 음악 감상을 보다 흥미 있게 이끌어야 한다.

둘째, 아동들은 대중음악을 선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음악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음악은 아동들에게 생산적이고 창의적이며 진정한 의미의 쾌락을 추구하게 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악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대중음악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흥미만 유발시킬 수 있다면 비록 유치하기는 하나 유치한 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될 것이며 그렇다면 교육적으로 이용할 가치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방송 관계자들은 좋고 나쁜 음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을 인식하여 시청률에만 의존한 방송보다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대중음악을 선별하여 방송해야 하며, 고전 음악의 방송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아동들에게 보다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넷째, 교사는 대중 음악을 올바른 정서를 형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여 무조건 외면하지만 말고 아동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아동의 발달 과정에 적절한 지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중 음악을 들을 때 거부 반응을 갖지 않고 오히려 친근감을 갖는다는 것이 대중음악의 특징이면서 장점이므로 이러한 장점을 교육에 활용하여 학교 음악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섯째,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회가 필요하다. 어린이들의 발달은 성장 초기의 다른 사람들과 가졌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달하고 또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어린이에게 어떤 동기를 유발시켜주느냐에



따라서 발달한다. 학교와 가정에서 음악이 끊이지 않을 때 아동들은 항상 기분 좋은 느낌을 갖게 되고, 긴장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환경 조성, 즉 어린이들로 하여금 음악회에 보다 많이 그리고 자주 참여하게 하는 기회를 마련하여야만 하고, 이러한 환경과 여건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국가, 사회,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의 상호 유기적인 노력과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여섯째, 아동들에게 아름다운 정서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 자신이 아름다운 정서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음악 교육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음악적 기교의 연마가 무엇보다도 먼저 시행되어야 하며 교육 실천의 선구자로서, 사명감과 신념을 바탕으로 한 행동이 요구되며, 아동의 내면적 발달과 더불어 음악적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올바른 사명감과 각오로써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여 자질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부 록>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쁜 하루의 일정 속에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지의 응답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들이 평소 접하고, 듣고, 느끼는 음악적 환경에 대한 설문 조사입니다. 솔직한 그리고 정확한 의견은 앞으로 더 좋은 음악과 건전한 음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성 별 : 남 (    ), 여 (    )
- 학 교 : (            )
- 학 년 : (            )

1. 음악 시간에 가장 좋아하는 영역은?

- ① 가창 ② 기악 ③ 감상 ④ 작곡 및 이론

2. 학교에서 음악 감상수업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한다.  
② 아는 곡이면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  
③ 잘 하고 싶지만 악보나 설명이 불충분하여 흥미가 없다.  
④ 관심 없다.

3. 학교 음악 감상수업은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 ① 인격을 형성해 가는 데 도움을 준다.
- ② 교양을 쌓을 수 있다. ③ 장래 꿈을 심어준다.
- ④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 ⑤ 정서 순화에 도움을 준다.

(정서 순화 : 어떤 일에 부딪혀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덕으로 정성스럽게 가르쳐서 그 마음을 바르고 아름답게 감화시킴.)

4. 음악 감상 시간에 감상하는 방법은?

- ① 그냥 듣는다. ② 해설과 설명을 듣고 감상한다.
- ③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고 난 후 감상한다.

5. 고전 음악(모차르트나 베토벤의 곡)을 감상하면 좋은 점은?

- ①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② 정서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준다.
- ③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④ 나쁜 영향을 준다. ⑤ 잘 모르겠다.

6. 감상 영역에 흥미를 갖는 이유는?

- ① 선생님께서 감상 곡에 얽힌 에피소드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어서
- ② 그냥 음악을 듣는 것이 좋아서
- ③ 정서 순화가 되어서
- ④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껏 생각이나 상상을 할 수가 있어서
- ⑤ 가만히 앉아 있거나 낮잠을 잘 수가 있기 때문에

7. 가정에서 음악 감상은 어느 정도 하는 편입니까?

- ① 30분 이내                      ② 한 시간 정도
- ③ 1시간 이상                    ④ 전혀 하지 않는다.

8. 음악회가 열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 ① 권유에 의해서 억지로 간다.
- ②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 ③ 마음에 드는 연주자나 마음에 드는 곡일 때만 간다.
- ④ 음악회마다 간다.
- ⑤ 관심 없다.

9. 음악 감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 ① 공부 때문에 시간이 아까워서
- ② 시설 부족으로(감상 곡이나 오디오)
- ③ 음악 자체가 싫으므로
- ④ 이해할 수 없으므로

10. 음악 감상 시간에 감상한 곡을 학교 외에서 들어본 경험은?

- ① 많다.    ② 조금 있다.    ③ 거의 없다.    ④ 한 번도 없다.

11. 여러분은 주로 어떤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 ① 팝 음악(다른 나라의 가요)
- ② 클래식(모차르트나 베토벤과 같은 음악가의 곡)
- ③ 국악    ④ 가곡    ⑤ 대중 가요

12. 대중 가요에 흥미를 갖는 이유는?

- ① 현실 생활에 맞기 때문에
- ② 자신의 심정을 노래한 유행가가 많아서
- ③ 리듬이 좋아서
- ④ 쉽게 부를 수 있어서
- ⑤ 가수가 마음에 들어서
- ⑥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항상 들을 수 있으므로

13. 대중 음악을 감상할 때 어떤 느낌이 됩니까?

- ① 기분이 명랑해지고 신이 난다.
- ② 신체적으로 율동을 느끼게 된다.
- ③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슬퍼진다.
- ④ 시끄럽고 저속한 느낌이 든다.

14. 대중 음악을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 ① 방송을 통해서    ② 친구를 통해서
- ③ 음반을 통해서    ④ 공연장에 가서

15. 라디오나 TV방송에서 고전음악을 청취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많다.    ② 보통이다.    ③ 거의 없다.    ④ 한 번도 없다.

## 참 고 문 헌

- 이홍수, 『느낌과 통찰의 교육』,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2)
- 이혜구의 12명, 『음악대사전』, (서울 : 미도문화사, 1977)
- 용권, 『신교육학개론』, (서울 : 양서원, 1993)
- 최종진, 『음악과 교육론』, (서울 : 선일문화사, 1984)
- 황용연, 『심리학과 생활』, (서울 : 배영사, 1992)
- 이은일, 『음악교육학개설』, (서울 : 현대악보출판사, 1984)
- 김창성, 『음악의 효법과 적용』, (서울 : 태림출판사, 1980)
- 유덕희, 『아동발달과 음악교육』, (서울 : 개문사, 1993)
- 유덕희, 『음악교수법』, (서울 : 정음사, 1976)
- 유덕희, 『음악교육학개론』, (서울 : 신진출판사, 1973)
- 이성삼 · 이홍렬, 『음악감상론』, (서울 : 정음사, 1976)
- 정세문, 『음악감상교육』, (서울 문영문화사, 1964)
- 신용일, 『교육심리학』, (서울 : 동문사, 1978)
- 이성삼 · 이홍렬, 『음악감상설』, (서울 : 정음사, 1983)
- 이용일, 『음악교육학개론』, (서울 : 현대악보출판사, 1978)
- 최시원, 『음악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 다라출판사, 1996)
- 찰스 레온하드 & 로버트하우스,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 안미자 역  
(서울 : 이화여대출판부, 1992)
- J.I.Mursell, and Glenn,M. 한국음악교재연구회 역, 『음악교육심리학』, (서울 : 세광출판사, 1987)
- Miller,H.M, 『음악감상을 위하여』, 양일용 역, (서울 : 태림출판사)

Alden Buker. 양일용 역, 『음악감상의 새로운 접근』, (서울 : 태림출판사, 1984)

Russel B. 차경수 역, 『교육자의 사명』, (서울 : 중앙일보사, 1978)

Meissner, H., zur Entwicklung des Musikalischen Sinnes Dein Rindes, Zeitschrift, 'Die Stimme' 9.

Haecker von & Ziehen, T., Zur Verbung und Enywichiung der Musikalischen Begabong, 1922, p.170.

J.I.Mursell, Music as social opportunity, Human Values in Music Education(New York silver Burdett & Co.)

<학위 논문>



이숙현(1993), 『효율적인 음악감상 지도 방법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승익(1983), 『음악이 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손은주(1994), 『음악감상을 통한 청소년의 심리변화 연구』, 동아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병희(1994), 『인간형성을 위한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혜섭(1994), 『초등학교 음악과 지도방법의 개선 방향, 제6차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학습 지도 방안의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예술연구소.

<Abstract>

Research on the importance of listening to music  
and its efficient instruction method  
- Mainly for childhood -

Kim, Chang-Hee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Soon-Bang

As popular songs are so popular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students are bored of music classes that always introduce songs that they have already known of. As a result, the music classes in elementary schools don't help students cultivate healthy emotion. Music classes can't bring out its essential purpos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has brought industrial society and modern civilization but it also has brought cold hearts and social problems to the students. To solve the problems, not only music classes in school but also the popular songs should help the students to cultivate their healthy emotion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stimate the importance of listening to music, to find ways to teach it efficiently to the students, to find problems of



popular songs and music classes in school and to suggest systematic and efficient ways to improve music classes.

5~6 grade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s in Cheju were surveyed to achieve the purpose. Books on music classes and status of music classes are studied.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children are sensitive to everything. They can live a merry and bright life through music. Listening to music is very important for them to be a civilized citizen and to improve healthy emotion.

Second,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e status of popular songs and music classes.

1. Students were very interested in listening to music. They believed that listening to music improves their healthy emotions and acquire culture.

2. Most of the students said they had no time to listen to music or go to a classic music concert. It was because they were affected by exam oriented education that drives the students to private institutes for the study of English or computer.

3. They preferred popular songs to songs they learn in school because of the generalization of mass media and broadcasting that depends on public attention.

To make a conclusion, listening to music greatly affects children's intellectual or emotional ability. But what is more important is that it works as stimulus for sensitive children's physical or mental improvement. Accordingly, the government, schools, the society and family should provide many opportunity for children to grow healthy and bright with affluent emotion.